



1부

프로그램 개발 개요

1. 언어인성 교육의 정의 / 6
2.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 6
3. 프로그램의 특징 / 6
4. 기대 효과 / 7

2부

청소년 언어인성 교육 프로그램

제1장 프로그램 개요

1. 교육 목표 / 10
2. 프로그램 대상 및 구조 / 10
3. 지도 시 유의 사항 / 11
4. 단원 요약 / 12

제2장 프로그램의 실제

- 1차시 언어의 놀라운 힘을 발견해요 / 17
- 2차시 언어의 힘을 통해 언어와 인성의 관계를 살펴봐요 / 25
- 3차시 긍정적인 말은 더 나은 나를 만들어요 / 35
- 4차시 부끄러운 말은 우리를 낮춰요 / 45
- 5차시 공감적 듣기는 더불어 행복한 관계의 열쇠예요 / 57
- 6차시 더불어 행복한 말, 어떻게 할까요? / 67
- 7차시 차별의 언어, 나와 너를 가르고 다름을 인정하는 언어, 나와 너를 잊지요 / 79
- 8차시 서로 다를 뿐입니다. 차별 없는 언어생활이 모두를 웃게 합니다 / 89

부록

- 교안 활용을 위한 활동지 / 103
- 참고 문헌 / 130

1부

프로그램 개발 개요

1. 언어인성 교육의 정의

2015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인성 교육은 이러한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와 덕목이 언어라는 영역 안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청소년의 언어문화가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고 이로 인한 문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2015년 7월 13일에 발표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청소년 언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언어 사용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청소년의 비속어, 신조어’ 사용을 꼽았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비속어, 신조어, 줄임말 사용이 다른 세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82.1%로 조사되어 언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 무엇보다,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23.5%의 응답자들이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언어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3. 프로그램의 특징

어휘 표현에만 국한되어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많은 교육 자료들이 나왔지만 욕설, 비속어 사용 자제 등 어휘 표현의 영역에만 국한된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식과 이해, 가치와 태도, 실천과 행동의 변화를 위한 통합적 목표 설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청소년의 실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언어’와 ‘인성’이라는 개념의 특성상 언어인성 교육은 지식 전달 또는 인지 위주의 교육으로는 가치관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놀이 활동과 학습 활동을 활용하여 즐겁고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언어인성 교육의 핵심 주제인 공감, 소통, 배려가 잘 녹아들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참여가 가능한 활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청소년의 언어실태조사, 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각 차시별로 구성되어 있는 활동들은 지도하는 교사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관련 인성교육을 수행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각급 학교 및 청소년 유관 기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학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언어문화 개선’과 ‘인성교육’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언어’와 ‘인성’이라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기 힘든, 긴밀한 관계를 가진 개념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언어’에 특화된 ‘인성교육’을 통해 잘못된 언어 습관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자신의 성품과 태도를 성찰하고 반성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행복한 학교생활의 필수 조건인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은 ‘언어’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는 올바른 언어문화는 학급, 더 나아가 학교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조성해 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교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언어인성 교육 프로그램

제1장 프로그램 개요

1. 교육 목표

첫째,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이 즐거움을 경험하며 자발적,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스스로 언어문화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둘째, 언어를 매개로 한 인성 역량(소통, 공감, 배려 등)을 함양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 스스로가 언어문화 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합니다.

2. 프로그램 대상 및 구조

집단의 구성과 크기

집단 활동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수가 20~30명, 많게는 40명인 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활동 집단으로서 대집단이 줄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화된 놀이 활동 및 소집단 활동을 적극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명인 경우에는 6~8명씩 4~5개 소집단으로 운영하고, 40명일 때는 6~7개 소집단으로 나누도록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소집단에서도 2명, 3명, 또는 4명 이상으로 수시로 모듬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의 구성

프로그램은 모두 8차시로 구성하였으며, 차시별 시간은 중학교 1교시 수업(45분)을 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사는 집단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모든 차시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차시는 언어가 가진 힘, 3~4차시는 언어와 개인, 5~8차시는 언어와 사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인성을 고찰·함양해 볼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전체 8차시는 연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개별 차시 독립 운영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홀수(1, 3, 5, 7) 차시는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짝수(2, 4, 6, 8) 차시는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업 절차

매 차시 수업은 도입, 전개,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관성 있는 구성은 교사들의 진행을 쉽게 하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일 것입니다.

3. 지도 시 유의 사항

교사는 학생들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일관된 집단의 규범’, ‘상호 수용과 지지’, ‘신뢰가 바탕이 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차시별 집단 활동의 전 과정을 통해 목적과 목표를 통합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과 역량이 차시별 목적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효과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세심한 지도력이 요구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동반자 혹은 같은 집단원이 되어 활동 규칙 엄수, 시간 관리, 경청, 피드백, 수용, 지지,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본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은 집단 환경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진행 교사가 전체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각 차시별 진행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 활동에 대한 설명은 매뉴얼만 보고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집필되었으나 집단 환경에 따라 교사의 유연한 대처와 진행이 요구됩니다. 진행 교사의 판단에 따라 프로그램의 차시 혹은 활동을 수정 및 변경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4. 단원 요약

차시	단원명	학습 목표	주요 활동 내용	
언어로 드러나는 인성, 언어로 형성되는 인성				
1	언어의 놀라운 힘을 발견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언어의 힘 깨닫기집단에 대한 기대 쌓기집단 약속 공유하기	도입	[활동1] 교사 소개 및 집단의 목표, 약속 공유 [활동2] 만나서 반가워요
			전개	[활동1] 빨리 풀어 오세요 [활동2] 내가 겪은 언어인성
			마무리	[활동] 형용사 한마디
2	언어의 힘을 통해 언어와 인성의 관계를 살펴봐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언어와 인성의 관계 알기언어의 힘 표현하기바람직한 언어생활 태도 함양하기	도입	[영상 시청] 『당신의 언어습관을 기록합니다』
			전개	[활동1] ‘말’은 그저 ‘말’일 뿐, 행동은 아니라고? [활동2] 언어는 <input type="text"/> 이다.
			마무리	[설명] 언어와 인성의 관계 정리 [활동] 수업 소감 발표
내가 쓰는 언어, 나를 만드는 언어				
3	긍정적인 말은 더 나은 나를 만들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언어 사용 이해하기자기 표현하기긍정적 언어 가치관 형성하기	도입	[활동] 콧. 콧. 콧
			전개	[활동1] 내가 갖고 싶은 말 [활동2] 나를 만들어 가는 말
			마무리	[활동] 오늘 나는
4	부끄러운 말은 우리를 낮춰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격 비하 표현 이해하기언어생활 반성하기	도입	[영상 시청] 『어서 말을 해』
			전개	[활동1] 인격을 낮추는 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활동2] 인격 비하 표현, 반성 좀 하자!
			마무리	[설명] 인격 비하 표현의 부정적 영향 정리

차시	단원명	학습 목표	주요 활동 내용	
관계를 형성하는 언어				
5	공감적 듣기는 더불어 행복한 관계의 열쇠예요	• 공감적 듣기 이해하기 • 공감적 듣기 표현하기 • 공감적 듣기 태도 증진하기	도입	[활동1] 아우라 [활동2]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전개	[활동] 공감적 듣기
			마무리	[활동] 오늘 나는
6	더불어 행복한 말, 어떻게 할까요?	• 공감과 배려의 언어 원리 이해하기 • 공감과 배려의 언어생활 태도 함양하기	도입	[영상 시청] 『한 발짝』
			전개	[활동1] 너와 나,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활동2] 이렇게 말하고 들어 보는 게 어때?
			마무리	[설명]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하기 원리 정리 [활동] 자신의 언어생활 성찰
차별의 언어, 다름의 언어, 통합의 언어				
7	차별의 언어, 나와 너를 가르고 다름을 인정하는 언어, 나와 너를 잊지요	• 차별적 언어 표현 이해하기 • 다름을 존중하는 언어적 태도 증진하기	도입	[활동] 언어 환경미화원
			전개	[활동] 내가 만약
			마무리	[활동] 상황극 피드백 나누기
8	서로 다름 뿐입니다. 차별 없는 언어 생활이 모두를 웃게 합니다	• 차별적 언어 태도 실태 이해하기 • 다름을 존중하는 언어 습관 형성하기	도입	[광고 감상] 『살색 크레파스』
			전개	[활동1]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활동2] “사랑해, 너희는 모두 나의 소중한 친구야!”
			마무리	[설명] 활동의 의미 정리

청소년 언어인성 교육 프로그램

제2장 프로그램의 실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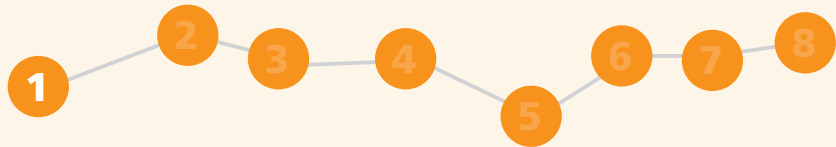
언어의 놀라운 힘을 발견해요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언어인성 교육으로서 집단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해한다.언어가 지닌 다양한 힘을 깨닫는다.언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강화한다.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집단의 목표와 약속 나누기언어의 힘(인성 형성 포함) 인식 촉진 활동올바른 언어 사용 동기 강화 활동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집단의 약속에 대한 참가자들의 자발적 동의와 공유하기수업 전에 휴대전화 걸기교사의 인격적인 언어적 태도 모범보이기경쟁시키거나 점수를 매겨서 보상이나 벌칙 주지 않기

과정		내용	준비물
도입	10분	교사 소개 및 집단의 목표, 약속 공유 [활동1] 『만나서 반가워요』	종이테이프
전개	30분	[활동1] 『빨리 풀어 주세요』 [활동2] 『내가 겪은 언어인성』	활동지, A4용지, 필기구
마무리	5분	[활동] 『형용사 한마디』	

도입

10분



이것만은 꼭!

집단의 성패는 집단의 첫 모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사는 첫 차시 활동 시 낯선 환경에 처음 온 학생들의 긴장과 불안함을 해소하고, 서먹하고 냉랭한 분위기를 즐겁고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교사는 가르치려 하기 이전에 서로 즐거운 만남과 사귀기를 유도하십시오.



일러두기

● 교사는 첫 회기를 시작할 때 학생들 한명 한명 진심으로 환영받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시오. 교사가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등을 두드려 주며 “반갑다. 잘 지내보자.”라며 다정하게 대하면 학생들의 얼어 있는 마음을 열어주고 낯선 집단에서 느끼는 긴장과 불안을 덜어주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교사는 집단 규칙을 소개할 때 학생들이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억지로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학생들이 자발적인 자기 의지에 따른 동의 및 약속의 과정을 거쳐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집단의 규칙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설렙니다.

2 이 시간은 우리가 건강한 언어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기대를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즐거우면서도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지켜볼 만하다.’, ‘그거 괜찮네.’ 하고 생각이 들면 동의한다는 뜻으로 내 말을 따라주세요. 알았지요?

3 첫 번째 약속은 경청하기입니다. 사람은 언어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소통과 만남이 이루어 집니다. 경청은 관계 형성의 시작이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경청할 때 내 말도 다른 사람이 귀 기울여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바른 말, 고운 말, 우리말 사용하기입니다. 한 사람을 형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가 ‘말씨, 맘씨, 몸씨’입니다. 말, 맘, 몸이라 하면 될 것을 그 뒤에 ‘-씨’를 붙인 까닭이 있습니다. 말과 맘, 몸은 생명과 같아서 심는 대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바른 말, 고운 말, 우리말

을 쓰면서 함께 즐겁고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품위 있는 말을 쓰면서 스스로 멋진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자라갑시다.

세 번째 약속은 놀이규칙 지키기입니다. 규칙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서로 책임감 있게 지켜나갈 때 오히려 자유와 즐거운 만남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놀이 활동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서로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 규칙들을 지켜가는 가운데 행복하고 유익한 모임을 만들어 갑시다.

4 여러분, ‘반갑습니다.’는 순우리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담겨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 만남이 서로에게 기쁘고, 즐거운 사귀어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색다른 인사 놀이를 해 보겠습니다.

● 교사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약속을 설명하여 학생들이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스스로 지키겠다는 자발적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교사는 참여자들과 집단의 규칙 지키기를 약속한 후에 첫 모임을 즐겁게 열어보자며 바로 활동에 들어가십시오. 학생들은 첫 모임에서 기대보다는 보통 불안감을 갖고 참여합니다. 이에 교사는 집단 초기에 학생들의 긴장과 어색함, 불안감을 해소하고 집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이때 여는 놀이(warm up game, ice breaking game)는 탁월한 힘을 발휘합니다.

활동 / 1



만나서 반가워요

준비물: 종이테이프



활동 방법

한 사람씩 종이테이프를 30cm 정도 잘라서 나누어 준 후 다섯 조각으로 잘라서 손등에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교사는 3분 정도 시간을 준다고 알려주며 “시작”을 알립니다. 시작과 함께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만나 진심을 다해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의 얼굴에 종이테이프 한 조각을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손등뿐 아니라 얼굴에 붙은 종이테이프도 떼어서 상대방에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면 활동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 앉은 다음 누구의 얼굴에 테이프가 가장 많이 붙어 있는지 알아보세요. 놀이를 마친 다음에도 얼굴에 붙은 테이프를 떼지 않고 한동안 붙이고 다니도록 해도 좋습니다.

●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새 얼굴 여기저기 붙어 있는 종이테이프로 망가진 서로의 모습에 왁자지껄 웃음꽃이 피입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엉겁결에 집단 안으로 빠져들지요. 이때 교사도 한 명의 참여자로 활동하면서 참가자들과 관계를 맺고, 활동 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혼자 서 있는 친구가 있다면 교사가 먼저 다가가 함께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을 동시에 초대하여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전개

30분



이것만은 꼭!

교사는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며 참가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해 보며, 느낄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적 태도에 대해 돌아보고 긍정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수·학습 진행

일러두기

1 서로 반갑게 인사해 보았나요? 이번에는 언어의 놀랍고 다양한 힘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활동 / 1



빨리 풀어 오세요

준비물: 활동지(부록 103쪽 참조), 필기구



활동 방법

5-6명씩 소집단을 만든 후 모둠별로 활동지와 필기구를 하나씩 나누어 주되 미리 보지 않게 하십시오. 교사의 “시작”과 함께 모둠별로 협력하여 활동지에 적힌 여러 도전 과제를 신속하게 풀도록 합니다. 시간이 다 되면 모두 풀지 못해도 괜찮다고 알려주고 정답을 확인해 봅니다. 언어의 다양한 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퀴즈와 몸으로 협력하며 즐겁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과제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목의 내용은 집단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집단 활동을 지도하는 지혜

- ① 활동지의 1번과 3번의 경우, 모둠에서 대표로 한 명씩 나와 실제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면 집단의 분위기를 돋울 수 있습니다. 단, 교사는 학생들이 앞에 나온 친구들에 대해 비아냥거리거나 웃음거리로 삼지 않도록 작은 재주도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 ② 활동지의 5~7번 항목은 언어의 힘에 대해 알아맞혀 보는 퀴즈입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들이 표현되고,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십시오.
- ③ 교사는 ‘맞았다, 틀렸다’ 관점으로 답을 말하기보다 그 질문에 얽힌 실제 사연이나 이야기를 들려주며 언어의 힘에 대해 느낄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20 함께 가꾸는 말씨와 마음씨



1차시 활동1

빨리 풀어 오세요

1. 모둠에서 가장 높은 음을 내는 사람을 알아보십시오.
2. 모둠원들은 소지품 및 주변에 있는 물건들(시계, 양말, 학용품 등)을 사용하여 ‘언어의 힘’이라는 글자를 만드십시오.
3. 모둠에서 한마디라도 5개 국어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4. 순우리말, ‘뽕뽕사랑광’은 무슨 의미일까요?
5. 어떤 유명한 박사가 지하도를 지나가는데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달러를 주지만 하고 연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박사는 달랐습니다. 박사와 거지의 다음 대화를 통해 거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거지의 구절에 박사가 요청합니다. “아까 준 1달러의 대가로 연필을 주세요.” 이 말을 듣고 거지가 속으로 ‘치사한 놈, 1달러밖에 주지 않은 놈이 연필을 달라고 해, 짜짜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연필 한 자루를 건넵니다. 연필을 받은 박사는 거지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당신도 이제 나와 같은 사업가요. 당신은 더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

6. 다음은 어떤 시절, 선생님이게조차 ‘배보’라는 소리를 들던 자식에게 어머니가 늘 들려주던 말입니다. 훗날 이 사람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유명한 과학자가 되지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넌 세상의 다른 아이들에게는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단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 길을 찾아 가야 한다. 넌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 ① 아이작 뉴턴 ② 아인슈타인 ③ 토머스 에디슨

7. 아칸 근무를 하고 있던 군인에게 그 걸을 지나가던 연예인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음료수 두 캔과 아이스크림을 건네며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그 군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충성! 수고하세요.”

우리 생각:

교안 활용을 위한 활동지 103

퀴즈 정답

4번: 스토커

6번: ② 아인슈타인



5번에 얽힌 이야기: 운명을 바꾼 한마디

미국의 적극적인 사고 훈련가인 지그 지글러(Zig Ziglar) 박사가 뉴욕의 한 지하도를 지나다가 연필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거지와 만난 이야기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거지에게 연필을 받지 않고, 그냥 1달러만 주곤 했습니다. 지글러 박사도 그렇게 지나치려 했는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거지에게 돌아와 1달러 대가로 연필을 요구했습니다. 거지는 속으로 욕을 하면서도 연필을 건네주었는데 이에 지글러 박사는 거지에게 당신은 더는 거지가 아니라 나와 같은 사업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거지는 뭔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고, 자신은 더는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라고 스스로 인식하면서 ‘사업가’로서의 새로운 자화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거지는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다. 연필을 파는 사업가.”라고 마음에 새기며 훗날에 큰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거지는 지글러 박사를 찾아가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필도 안 받은 채 돈 1달러만 주고 가기 때문에 늘 나는 거지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당신은 연필을 받아가면서 ‘당신도 나와 똑같은 사업가’라고 말해주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언어의 놀라운 힘을 발견해요 21

6번에 얹힌 이야기: 한 사람의 천재를 탄생시킨 믿음과 인정의 말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20세기 독일의 천재 물리학자이자 192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1879~1955)은 어린 시절 4살까지는 말을 하지 못했고, 7살까지는 글을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가득하고 질문이 많은 어린이였습니다. 그런 아인슈타인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당연한 것을 묻는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한결 같이 아들을 지지하고 믿어주는 말과 태도를 보여주면서 자신감을 키워주고 스스로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해 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었습니다. 이처럼 20세기 천재 물리학자의 탄생은 든든히 그 곁을 지켜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7번에 얹힌 이야기: 목숨을 살려 준 한마디

13년 전 군대 생활을 했던 한 누리꾼 ○○○ 씨의 사연입니다. 군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고, 집안 사정도 좋지 않은 와중에, 갑작스럽게 심각한 집안 소식을 듣고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지막으로 새벽 근무만 다녀와서 끝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 케이블 공사 감독 작업으로 매일 부대 근처 일산모 방송국 앞쪽 시내를 지나다녔었는데 그날 지뢰탐지기를 들고 군 통신 맨홀을 찾는 작업을 위해 근무를 나갔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간부가 급히 어딜 가야 해서 다른 현장으로 갔고 이에 ○○○ 씨는 슈퍼에서 시원한 콜라나 한잔 사 먹자고 지갑을 열었는데 50원밖에 없어 헛웃음만 지으며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작업 중에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한 인기 연예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예인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그거 지뢰탐지기 맞죠? 그걸로 뭐 찾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보안상 말해 줄 수 없다는 답변에 그 연예인은 ‘죄송하다’며 매니저와 가던 길을 갔다고 합니다. 몇 분 뒤 누군가 등을 두드려 돌아보니 그 연예인이 이온음료 두 캔과 아이스크림을 가져와 먹으라며 손에 쥐어주고 가면서 “충성! 수고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네며 갔다고 합니다. 이에 ○○○ 씨는 자살 결심을 거두었고, 그때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회상합니다.

2 말이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밖에도 고려 시대 충신인 서희는 칼이 아닌 외교 담판으로 나라를 구했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내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지요.

3 이런 거창한 예시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들도 친구들 사이에 말 한마디로 용기를 얻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잘못된 소문 때문에 따돌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럼 이번에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언어의 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활동 / 2



내가 겪은 언어인성

준비물: A4용지, 필기구



활동 방법

교사는 『빨리 풀어 주세요』에서 이론 모둠끼리 둘러앉도록 하고, A4용지와 필기구를 나누어 줍니다. 이어서 학생들에게 3~4가지의 문제를 주고 A4용지에 답을 적게 합니다(문제의 예시는 아래 ‘집단 활동을 지도하는 지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적은 용지를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두 번 접어서 모둠 중앙에 놓고 씩습니다. 모두 다 제출한 후 모둠원 중 한 명이 씩은 종이 중 하나를 뽑아 읽습니다(우연히 자신의 쪽지를 뽑았다면 모른 척합니다). 모둠원들은 그것을 듣고 “하나, 둘, 셋”과 함께 그 종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아맞혀 봅니다. 그 종이의 주인공은 이러한 답을 적은 이유에 대해서 모둠원들에게 간단히 말해줍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사람까지 계속 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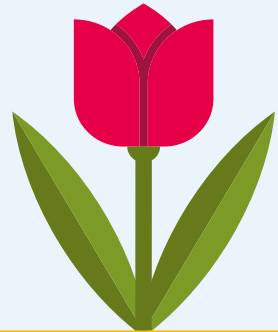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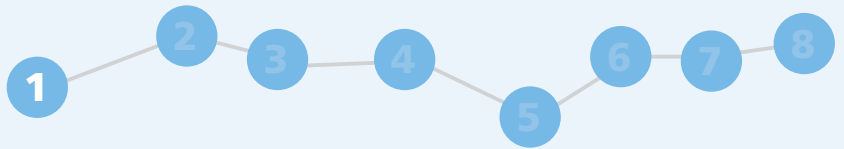
집단 활동을 지도하는 지혜

- 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교사가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짧게 시범을 보여주면 모둠별로 스스로 진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 ② 항목의 수는 3~4가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면, 1번 ‘내가 어젯밤 10시에 했던 일(어디에서, 무엇을)’, 2번 ‘내가 가장 듣기 싫은 말’, 3번 ‘내가 가장 힘이 났던 말’, 4번 말과 관련한 ‘나의 개인적 경험’(예시: 나는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멀어진 적이 있다.) 등이 있습니다. 항목의 내용은 유연하게 수정, 변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③ 교사는 항목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주며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이해를 돕도록 합니다.
- ④ 쪽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맞힌 후에 바로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지 말고, 쪽지의 주인공에게 2~4번의 내용 중에 한두 항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연을 함께 들어 보면 나눔이 깊어집니다.



마무리

5분



교수·학습 진행

1 여러분 오늘 스스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냈나요? 저도 함께하면서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활동을 하면서 말 한마디가 역사와 한 사람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언어는 인성을 드러내고, 인성을 만들어 가기도 하는 다양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나와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오늘 활동한 느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 한마디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러두기

● 마지막 활동을 마무리하고 학생들과 큰 원으로 둘러 앉습니다.

● 형용사로 말하는 것 대신 “오늘 모임은 ○○이다.”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참고 자료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고 있어서 협동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고 승패를 가리지 않으면 게임을 할 수 없는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나는 경쟁 중에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만남과 사귀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이를 점수로 평가하고 등수를 매기지만 않아도 협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놀이규칙을 엄수하는 일입니다. 놀이에서 사람들이 상호 놀이규칙을 존중하고 지킨다면 승패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적 보상을 유혹의 미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놀이에서 상과 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출처: 전국재(2014), 아자! 행복한 만남과 사귀, 시그마프레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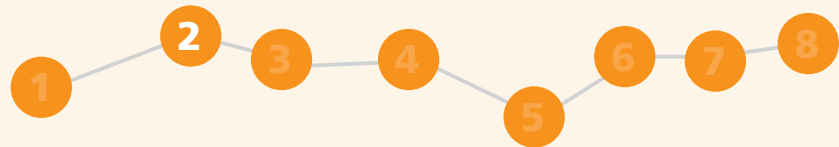
언어의 힘을 통해 언어와 인성의 관계를 살펴보아요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의 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언어를 통해 인성이 드러나고 형성됨을 이해한다. • 언어의 힘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언어의 힘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하는 태도를 갖는다.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의 힘 깨닫기 • 언어의 힘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 언어와 인성의 관계 이해하기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시 경쟁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과정		내용	준비물
도입	5분	[영상 시청] 『당신의 언어 습관을 기록합니다』	영상 시청 장비
전개	35분	<p>[활동1] 언어의 힘 관련 사례 읽고 토의하기 『말'은 그저 '말'일 뿐 행동은 아니라고?』</p> <p>[활동2] 언어의 힘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언어는 <input type="text"/> 이다.』</p>	<p>활동지 필기구 색지 흰색 도화지 매직펜</p>
마무리	5분	<p>[설명] 언어와 인성의 관계 정리</p> <p>[활동] 수업 소감 발표</p>	

도입

5분



이것만은 꼭!

'언어인성'이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도입에서는 학생들이 '언어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각자 '언어'와 '인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지도합니다. '언어인성'의 개념을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언어'와 '인성'의 관계가 드러난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합니다.



교수·학습 진행

1 이번 시간에는 '언어의 힘'을 중심으로 '언어'와 '인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이 공익 광고 한 편을 보여 줄 건데, 영상 시청 후에 (화면에 제시된 질문 목록을 가리키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공익 광고를 함께 본 후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해요.

[질문 목록]

- 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이 광고는 언어의 어떤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 이 광고를 통해 언어와 인성이 어떤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나요?

일러두기

●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가 '언어의 힘'에 주목함으로써 '언어'와 '인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임을 설명한 후, 관련 영상을 보여줍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미리 영상 시청 후 할 질문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영상의 내용을 학습 목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전개 단계에서 모둠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처음부터 모둠별로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시청



당신의 언어습관을 기록합니다

영상 경로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자료 찾기 → 국어 관련 영상 및 방송 → 영상·방송 자료 → 당신의 언어습관을 기록합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 2** 모두 잘 보았나요? 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죠?
학생: 욕을 쓰지 말자. 청소년들이 욕을 많이 쓴다. 욕을 쓰는 것은 나쁘다.
- 3** 맞아요. 나쁜 말을 하는 학생들 입 모양이 어떻게 변했죠?
학생: 괴물처럼 변했어요.
- 4** 계속 이렇게 나쁜 말을 하면 10년 후 이 학생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학생: 무섭게 변할 것 같아요.
- 5** 맞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요. 이 광고에서는 그걸 '얼굴'이 변한다고 표현한 것이겠죠.
학생: 네, 선생님.
- 6** 이 광고를 보니까 '말'에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 우리의 인상을 결정지어요. 우리 마음의 모습을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결정지어요.

● 영상 시청 후 학생들에게 앞서 제시했던 질문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이 광고를 통해 언어와 인성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지도합니다.

● 이 광고는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도입에서는 이 자료를 언어와 인성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 현상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언어와 인성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개

35분



이것만은 꼭!

학생들이 '언어의 힘'에 관한 다양한 글을 읽으며, 언어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또, 읽기 자료에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언어'와 '인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교수·학습 진행

1 자 그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 볼까요?

학생: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읽는다.)

[학습 목표]

- 언어의 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언어를 통해 인성이 드러나고 형성됨을 이해한다.
- 언어의 힘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언어의 힘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하는 태도를 갖는다.

2 잘 읽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언어의 힘에 관한 글을 읽고, 언어의 힘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이 활동을 통해 언어의 힘을 깨닫고, 언어를 통해 인성이 드러날 뿐 아니라 언어를 통해 인성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3 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언어의 힘'에 관한 읽기 자료와 활동지를 나눠 줄 거예요. 활동지에는 이야기를 통해 언어의 어떤 힘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적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잘 읽고 각자 써 보도록 해요.



일러두기

-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전개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안내합니다.

활동 / 1



언어의 힘 / 읽기 자료 1, 2, 3

준비물: 활동지(부록 104, 106, 108쪽 참조), 필기구



활동 방법

'언어의 힘'과 관련된 읽기 자료 및 활동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이 우선 각자 글을 읽고 활동지에 제시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읽기 자료 1에 제시된 글에 비해 2에 제시된 글이 다소 어려우므로, 학습자 수준에 따라 읽기 자료 1만을 활용하여 지도할 수도 있고, 읽기 자료 2 대신 읽기 자료 3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 학습자 수준 등에 따라 참고 자료에 제시된 글 이외에 다른 글이나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국립국어원 공동기획 MBC 한글날 특집 "말의 힘"

2차시 활동1

언어의 힘 | 읽기 자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계가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공목 안에는 고인고만한 한옥 네 채가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한 집에 아이가 보통 네댓은 되었으므로 그 공목강에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잡아 열 명이 남았다. 학교가 귀찮아 되면 공목 안은 사람벽의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공목강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어머니는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혀셨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딱히 놀이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탕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고무줄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삼만을 시키거나 신발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는 한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내가 답답할까 봐, 미리 내게 어디에 숨을지를 말해 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집은 공목 안에서 중앙이 아니라 구석 쪽이었지만 내가 앉아 있는 계단 앞이 친구들의 놀이 무대였다.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나는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 느낄까 봐 친구들이 배려해 준 것이었다.

그 공목강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종 일의 끝나서 나는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깨끗 장수가 공목강을 지나고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켜면서 내 앞을 지나더니 다시 돌아와 내게 깨끗 두 개를 내밀었다. 순간 그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여주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것인지지는 몰랐다. 돈 없이 깨끗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가도 괜찮다는 것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 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름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느 방송 채널에 오래된 학교 친구를 찾는 프로그램이 있다. 한번은 어느 가수가 나와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찾았는데, 함께 축구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허리가 36인치나 되는 통통한 친구가 있었는데, 통통해서 잘 뛰지 못한다고 다른 친구들이 축구 팀에 끼워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그 가수가 나서서 말했다.

"괜찮아. 그럼 애는 골키퍼를 하면 함께 놀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는 골키퍼로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했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따뜻한 말과 마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하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 팀이 독일에겐 졌을 때, 관중들은 우리 선수들을 향해 외

104 | 함께 가꾸는 말씨와 마음씨

읽기 자료 2

읽기 자료 3

4 여러분, 다 읽고 활동지도 풀어 보았나요?

학생: 네.

5 자, 그럼 글을 읽고 언어의 어떤 힘을 발견했는지 모둠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어요. 모둠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야, 모둠별로 언어의 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다음 활동을 잘할 수 있어요. 모둠 내에서 한 사람씩 자신이 발견한 언어의 힘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돌아가면서 발표하도록 해요.

학생: (모둠원들이 자신이 발견한 언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6 자, 그럼 이제 각 모둠별로 한 명씩 자신의 모둠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간략히 발표해 보도록 해요.

학생: (모둠원 중 한 명이 발표를 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발표를 들으며 다른 모둠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확인한다.)



이것만은 꼭!

이 활동은 언어의 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참신하거나 재미있는 표현을 찾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언어의 힘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언어의 힘에 대한 이해가 언어와 인성의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자, 이제부터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언어의 힘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단순히 언어의 특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표현하는 활동이에요.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요.

●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읽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학생들이 글의 내용 파악 자체를 어려워할 경우 선생님이 글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한 후 활동지를 작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이 활동은 문제의 정답을 맞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글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 학생들이 읽기 자료에 제시된 사례에서 언어의 힘을 이끌어 내도록 하되, 이를 자신의 경험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언어의 힘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합니다. 교사가 간략한 시범과 함께 활동 방법을 설명합니다.

활동 / 2



[언어의 힘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언어는 이다.”

준비물: 색지, 매직펜



활동 방법

1. 모둠 구성 및 활동 준비

- ① 4~5명이 한 모둠을 구성합니다.
- ② 모둠별로 ‘색지’ 1장, ‘매직펜’ 1개를 배부합니다.
- ③ 선생님은 칠판에 “언어는 이다.”를 크게 써 놓습니다.



2. 앞서 읽은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언어는 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언어의 힘을 표현해 보게 합니다.

- ① 언어의 어떤 힘을 표현하고 싶은지 각자 공책에 적어 보게 합니다.
예) 언어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기도 해요.
- ② 자신이 적은 언어의 힘을 비유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게 합니다.
예) 양날의 칼. 약이면서 동시에 독인 것.
- ③ “언어는 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각자 표현해 보게 합니다.
예) “언어는 양날의 칼이다.”, “언어는 약이면서 동시에 독이다.”

3. 각자 만든 문장을 모둠원들과 공유합니다.

- ① 모둠원들이 돌아가며 자신이 쓴 문장을 말하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 ② 비슷한 발상을 가진 표현끼리 묶은 후, 모둠원들이 협력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언어의 힘을 더 적절하고 참신하게 고쳐 나갑니다. 토의를 하여 제시된 표현을 약간 수정할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좋습니다.
- ③ 모둠원들이 함께 최고의 표현을 만들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준비합니다.

4. 모둠 대표작을 칠판에 붙이고, 모둠별 발표자가 앞으로 나와 그렇게 표현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각 모둠의 발표 후에 선생님이 발표 내용을 정리하며 의미에 대해 보충 설명합니다.

※ 모둠별 발표자를 정하는 방법

모둠별 발표자를 모둠원들끼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발표 부담으로 인해 서로 떠미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둠 내에서 앉은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여 “모둠별 3번 학생이 발표하세요.”와 같은 방식으로 교사가 발표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둠별로 두 명씩 나와 발표하거나 모둠원 전체가 나와서 발표 내용을 조금씩 나누어 발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교실 상황에 따라 선생님께서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각 작품 아래에 칭찬의 글을 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모둠별로 나가 다른 모둠의 작품에 대해 칭찬의 글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칭찬은 단순히 “잘했다.”와 같이 쓰기보다는 어떤 점에서 언어의 힘을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밝힐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6. 학생의 발표를 들은 후 선생님이 보충 설명하여, 학생들이 언어의 힘에 대한 인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은 칠판에 붙은 각 모둠의 작품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그러한 언어의 힘을 느꼈던 경험이 있는지 발표해 보게 합니다.



8 여러분 모두 잘해 주었어요. 자, 그럼 오늘 각 모둠에서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실제로 언어의 힘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학생: 선생님,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9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발표 중에 “언어는 얼굴이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와 관련된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선생님 집에 놀러 왔던 친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모님께서 “아, 그 말을 아주 예의바르게 하던 친구!”라고 하시며 그 친구를 기억해 내셨어요. 선생님은 오늘 발표를 들으며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을 기억해 낼 때 보통 얼굴이 떠오르는데, 선생님 부모님은 얼굴이 아니라 선생님 친구가 했던 말을 떠올리셨거든요.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가 얼굴만큼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언어는 얼굴이다.”라는 발표를 듣고 그때 경험이 떠올랐고, 언어의 힘이 크다는 것도 새삼 느꼈어요.

학생: (선생님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10 자, 이제 어떻게 경험을 나누는지 알겠죠? 그럼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 ○○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학생: (오늘 발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한다.)

● 모둠별로 언어의 힘에 대한 비유적 표현을 만들 때 경쟁적이 아니라 협력적인 방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활동 운용 시 활동 시간을 안내하고, 활동 중간에 남은 시간을 안내해 주어 정해진 시간 내에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모둠별 발표 시 앞으로 나와 발표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에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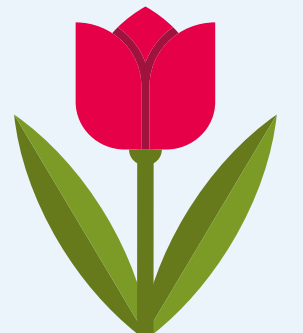
마무리

5분



이것만은 꼭!

전개 단계에서 주로 ‘언어의 힘’에 초점을 두고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면, 마무리 단계에서는 언어의 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생’에서 왜 ‘언어’가 중요한지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교수·학습 진행

1 우리가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죠?

학생: 언어의 힘에 관한 글 읽기요. 언어의 힘 표현하기요.

2 맞아요. 오늘 우리는 언어 습관이 우리의 얼굴에 기록된다는 공익 광고를 보고, 언어의 힘에 대한 글을 읽은 후 언어의 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해 보았어요. 자, 오늘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학생: 바나나요. 괜찮아. 언어의 힘 표현하기요.

3 그래요. 오늘 언어의 다양한 힘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가 용기를 주고, 격려가 되고 그 아이의 삶을 부축해 주었죠. 우리 생각이 말을 통해 표현되지만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뀐다는 것도 배웠지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언어의 힘을 고려할 때 언어와 인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학생: 고운 말을 써야 인성도 좋아져요.

4 맞아요. 간혹 어떤 학생은 나쁜 말을 해도 마음은 착한 친구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언어의 힘에서 보았듯이 나쁜 말은 나와 상대 모두에게 상처를 주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나쁜 말을 사용했다고 해도 그게 자꾸 반복되면 어느새 자기가 사용하는 말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해요. 우리 처음에 보았던 광고 기억나죠? 그 광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학생: 네. 나쁜 말을 쓰니까 얼굴이 괴물처럼 변했어요.

일러두기

● 지금까지 한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정리하고 수업 소감을 들은 후, 이를 바탕으로 ‘언어’가 인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형성하는 힘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 언어는 우리 인성을 드러내는 창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성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말을 쓰면 내 마음도 점점 나빠지고, 좋은 말을 쓰면 내 마음도 점점 예쁘게 되는 거예요.

학생: 네.

6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선생님, 감사합니다.



언어의 힘과 관련된 영상 자료

1. 언어의 숨겨진 힘

- ①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는 한국어 덕분?
- ② 디자인된 글자, 서체의 힘
- ③ 멋글씨, 개성을 표현하는 예술
- ④ 상대의 감정을 움직이는 말의 힘
- ⑤ 말장난? 언어유희의 힘
- ⑥ 누구나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야기의 힘
- ⑦ 세계 평화를 꿈꾸는 언어
- ⑧ 당신은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 ⑨ 독이 되는 거짓말, 약이 되는 거짓말

※ 활용 방법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http://www.urimal365.kr>) → 놀라운 우리말 → 언어의 숨겨진 힘

2. 국립국어원 공동기획 MBC 한글날 특집 "말의 힘"

※ 활용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자료 찾기 → 국어 관련 영상 및 방송

3

긍정적인 말은 더 나은 나를 만들어요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및 타인을 통해 자신의 언어 사용을 이해한다. • 긍정적인 언어로 자신을 표현한다. • 긍정적 언어 사용에 대한 능동적 태도를 갖는다.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및 타인을 통한 자기 언어 인식 및 자기 이해 촉진 활동 • 긍정적 언어 사용에 대한 동기 강화 활동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운 말, 바른 말, 우리말 사용하기 • 교사는 활동의 '가르치는 자'가 아닌 '참여자'로 있기 • 집단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지켜나가는 분위기 형성하기

과정		내용	준비물
도입	5분	[활동] 언어로 보는 이미지 『콧. 콧. 콧.』	
전개	35분	[활동1] 나의 언어 가치관 『내가 갖고 싶은 말』 [활동2] 『나를 만들어 가는 말』	활동지, 필기구
마무리	5분	[활동] 미완성 문장으로 나누는 『오늘 나는』	활동지, 필기구

도입

5분



이것만은 꼭!

언어와 관련한 이미지에 대한 상호 피드백을 통해 긍정적 자기이해를 도모하고, 긍정적인 언어 형성의 내적 동기를 촉진하며, 활동에 기대를 갖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교수·학습 진행

1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도 다 같이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가 봅시다. 그러기 위해 활동에 들어가기 전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가기로 한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2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이 존재’입니다. 언어 역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사회의 약속체계로서 ‘관계적’이지요. 마르틴 부버는 “나는 너와의 참된 만남과 사귄 속에서 진정한 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언어는 상호 참된 만남과 사귄의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두기

● 교사는 이런 식으로 집단을 열고 처음에 했던 세 가지 약속, 즉 경청하기, 고운 말·바른 말·우리말 사용하기, 놀이 규칙 지키기를 알려주고 이를 함께 지키자고 뜻을 모으고 독려하십시오. 프로그램의 특성상 ‘고운 말·바른 말·우리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고 나누는 것으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활동 / 1



[언어로 보는 이미지] 콕. 콕. 콕

활동 방법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던지는 질문에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도록 합니다. 질문은 ‘언어 이미지’와 관련된 것으로 예컨대, “나중에 매력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사람은?”, “공감과 경청을 잘해서 상담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등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생각한 사람에게는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면 교사는 대체로 많은 선택을 받은 두 세 사람에게 선택을 받은 느낌이 어떤지, 또는 그 사람을 선택한 참가자 한두 명에게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물어보며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집단 활동을 지도하는 지혜

- ① 질문은 되도록 무겁지 않으면서 재밌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선택하여 밝으면서도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언어인성 동기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 ② 교사는 몇몇 친구들에게 표가 집중되는 인기투표식의 분위기가 되거나 특정 친구가 소외되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집단 분위기 형성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이를 위해 자신이 한 번 지목한 친구는 반복해서 지목하지 않는 규칙을 둘 수도 있습니다.
- ③ 그 밖에 나눌 수 있는 질문
 - 설득과 호소의 언어로 물건 판매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은?
 -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학생들을 잘 가르칠 것 같은 사람은?
 - 정의로운 변호로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전개

35분



이것만은 꼭!

타인을 통해 자신의 언어를 성찰하고, 긍정적인 언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합니다. 또한 상호 건강한 피드백을 위해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집단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교수·학습 진행

1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체는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저마다 자기만의 특별한 언어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언어 중에서 어떤 언어를 갖고 싶은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현재 나의 언어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언어를 갖고 싶은지 알아보시다.

일러두기

● 교사는 참가자들이 기대를 갖고 즐겁게 다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긍정적이고 밝은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활동 / 1



[나의 언어 가치관] 내가 갖고 싶은 말

준비물: 아홉 가지 색깔의 언어 색종이(부록 111쪽 참조)가 들어 있는 봉투(인원수만큼)



활동 방법

아홉 가지 색종이가 한 꾸러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십시오. 각 색종이에는 다른 종류의 '언어'가 적혀 있습니다. 예컨대, 칭찬/격려의 언어, 신뢰의 언어, 공감의 언어 등이 종이마다 달리 적혀 있는 셈이지요. 교사의 "시작" 소리와 함께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 색종이를 1장씩 바꾸어서 자기가 원하는 언어 9장을 재빨리 수집합니다. 한 번에 1장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언어만 모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모으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과 같은 언어를 수집하는 사람이 많으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수집하고자 하는 언어를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집단 활동을 지도하는 지혜

교사는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색종이를 보면서 잠시 어떤 언어를 갖고 싶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갖고 싶은 언어를 서로 선물하는 마음으로 즐거우면서도 훈훈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주십시오.

긍정의 언어 -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언어 - "잘할 수 있을 거야." "잘될 거야."	칭찬/격려의 언어 - 자신과 타인의 좋은 점을 인정해주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언어 - "역시!" "이대로 넌 충분히!"	신뢰의 언어 - 자신과 타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 - "내가 옳은 선택을 할 거라 믿어."
유머의 언어 - 웃음과 즐거움을 주고 삶에 여유와 풍요로움을 주는 언어 - "손쉽게 지구를 드는 방법은?" "물구나무를 신다."	공감의 언어 -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언어 - "나도 그랬을 거야."	용서의 언어 - 다른 이의 실수나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 주는 언어 -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난 다 잊었어."
책임의 언어 -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내가 맡기로 한 일을 성실하게 끝까지 해나가는 태도의 언어 -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가 해내야 할 일이야."	배려의 언어 - 다른 이를 도와주고 돌보아 주고자 마음을 쓰는 언어 - "내가 도움 일 있냐?"	존중의 언어 -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대하는 언어 - "네가 틀린 게 아니야." "서로 다를 뿐이야."



2 자신이 직접 갖고 싶은 언어를 수집했나요? 혹시 자신이 희망하는 언어를 한 가지로 다 모은 친구들이 있나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비록 다 수집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떤 언어를 갖고 싶은지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알고 성찰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방 및 타인의 피드백을 통한 자기이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 특히 또래 친구들의 피드백에 상

3 이번 활동도 정말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옆 친구들과 함께 몇 가지 주제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예요.



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실에서 학생들은 쉽게 자기 속내를 꺼내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험담하지는 않을까,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집단 안에서 집단에 대한 안정감, 소속감,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주목하여 여기에서는 교사의 효과적인 활동 지도를 위해 자기개방 및 타인의 피드백을 통한 자기이해를 돕는 '조해리의 창(Johari's Window)'을 소개해 두었습니다(부록 참조).

활동 / 2

나를 만들어 가는 말

준비물: 활동지(부록 112쪽 참조), 필기구

활동 방법

교사는 5~6명이 한 모둠을 이루어 모둠별로 둘러앉도록 한 후 활동지와 필기구를 나누어 줍니다. 활동지 상단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이후 1, 2, 3번 문항을 순서대로 작성하게 합니다. 2번 문항을 작성한 이후에는 모둠 안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타인이 자신을 본 모습 중에 새롭게 느껴진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항을 작성한 이후에는 모둠 안에서 한 사람씩 발표하도록 합니다. 교사는 적절한 시간을 안내하며 모든 모둠이 같은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진행에 유의하십시오. 다 하고 나면 서로 박수를 보내며 격려하고 활동을 마칩니다.

3학년 1학기 활동지

나를 만들어 가는 말

[]을(를) 만들어 가는 말			
공감적인 말	비평적인 말	폭을 가두는 말	도전할 말
날 도와줘	날 도와주는	책을 가져오는	불친절한
배려하는	배려주는	자랑하는	무시하는
배려받은	논리적인	거짓말 할 때는	인정하는
존중하는	직접하는	소문내기 좋아하는	정당하지 않은
언급한	관심을 갖는	공격적인	날 책하는
공고 비문	이름을 불러주는	비판적인	자신감이 없는
따뜻한	행동하지 않는	불평하는	강박적인
부드러운	솔직한	협박하는	고지레할 줄 모르는
공자할 줄 아는	실용적인	자랑적인	자랑적인
기쁘게 있는	공감적인	배설적인	비판적인
확신 있는	결론한	억압하는	방만적인
공감적인	이성적인	아름다운	거친
행복적인	존경적인	과감한	비호적인
가벼운	기쁘게 있는	알고 있는	배려없는
말 잘하는	유머러스한	의견을 묻지 않는	사과할 줄 모르는
공감적인	배려하는	화를 잘 내는	폭력적인

1. 자신의 말을 통해 타인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공감적인, 비, 도전할 등에서 각 세 가지씩 선택해 보시오. 여기 나뉘어 있지 않는 말을 적어 보세요.

2. 자신의 동거를 잘 사람에게서 어떤대로 느껴집니다. 동거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의 말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3. 친구들이 어떤 2번 항목을 듣고, 앞으로 하고 싶거나 지양하고 싶은 말을 세 가지 기록 후, 이를 타인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한 문장으로 작성해 보세요.

나는 () () ()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싶습니다.

112 2학년 1학기 1학기 1학기

집단 활동을 지도하는 지혜

- ① 교사는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말은 인격이라 하기도 하고,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된다고도 하지요. 내가 쓰는 말이 곧 나를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 나의 말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려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애정을 갖고 임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와 같이 사전 활동 안내를 실시하십시오.
- ② 표에서 ‘부정적인 점’이라는 표현 대신 ‘도전할 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우리가 지닌 모습을 ‘문제’로 보기보다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며 스스로 생각하기에 도전하여 극복하고 싶은, 혹은 변화시키고 싶은 점이기 때문임을 설명해 주십시오.
- ③ 2번 문항 진행할 때 만약 집단이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거나 교사가 판단하기에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도전할 점’에 대해서도 쓸 수 있게 진행합니다. 집단에 대한 신뢰 수준을 고려하여 진행하면 타인을 통해 나를 더욱 더 깊이 돌아보고 동기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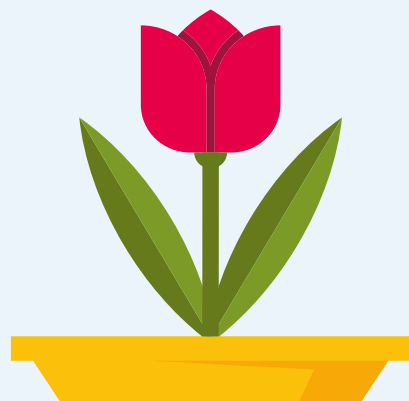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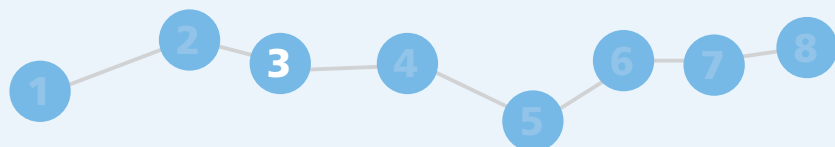


4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나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적은 다짐처럼 모두 긍정적인 말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나를 만들어 가는 말』은 나의 언어를 자신과 타인을 통해 이해하고 돌아보는 과정으로, 긍정적이고 성숙한 언어 가치관 형성을 촉진하는 활동입니다.

마무리

5분



일러두기

1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활동지를 나누어 줄 건데 작성해 보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시 활동3

오늘 나는

1. 오늘 나의 느낌은 _____입니다.

2. 오늘 나는 _____을(를) 배웠습니다.

3. 오늘 나는 _____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4. 오늘 나는 _____때문에 속상합니다.

5. 오늘 나는 _____을(를) 깨달았습니다.

6. 오늘 나는 _____이야기) 자랑스럽습니다.

교과 활동용 비전 활동지 113

● 학생들에게 『오늘 나는』 활동지 (부록 113쪽 참조)를 나누어 주고 3분 정도 작성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다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적은 내용을 나눕니다. 다 적고 난 후에는 6가지 문항 중 1~2가지 정도만 해도 무방합니다.

● 모두 발표를 마치면 『나를 만들어 가는 말』과 관련하여 교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짧게 하거나 시 한 편 (나를 키우는 말 - 이해인)을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담아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마무리합니다.

나를 키우는 말

이해인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참고 자료

건강한 자기개방과 피드백을 위한 집단의 분위기

첫째, 비밀 지키기입니다. 교사는 집단 안에서 나는 이야기나 일어난 일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참가자에게 또한 이것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아두십시오.

둘째, 무비판적, 무조건적인 긍정적 수용과 지지의 분위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사의 모범(modeling)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변화시킬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보거나 분석하고 진단하고 평가하는 식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학생들이 자기 느낌과 생각을 자기답게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수용과 지지, 공감하려는 진정성 있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늘 정답을 요구받는 환경에 있다 보니 자신의 느낌과 생각조차도 편안하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타인과의 비교·평가로부터 자유로워져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집중하여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집단의 분위기 형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교사의 이런 태도는 참가자 간 인간관계를 맺는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참가자 사이에 집단의 수용과 지지, 무비판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참가자들은 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솔직하고 편안한 자기개방 및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전국재(2014), 아자! 행복한 만남과 사귀, 시그마프레스.>



조해리의 창(Johari's Window)

	자기가 아는 자기	자기가 모르는 자기
타인이 아는 자기	I . 나와 너에게 개방된 영역 (개방 영역)	II . 너는 알고 나는 모르는 영역 (장님 영역)
타인이 모르는 자기	III .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 영역(은폐 영역)	IV .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역 (신비 영역)

I 영역은 나에 대해서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개방된 영역(public area)입니다. 언어적 측면에서 나의 언어 사용, 감정과 태도 등에 대해 나도 잘 알고, 너도 잘 아는 영역입니다.

II 영역은 나는 모르고 있는데 오히려 타인들이 알고 있는 영역으로 장님 영역(blind area)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습관적으로 ‘아이 씨’ 같은 말을 쓰는 것을 잘 모르지만 남들은 나의 이런 언어 습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III 영역은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은폐 영역(hidden area)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방어기제를 사용해 자신을 은폐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자기를 개방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IV 영역은 나의 어떤 모습에 대해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 해당하는 신비로운 미지의 영역(unknown area)입니다.

『나를 만들어 가는 말』 활동은 ‘조해리의 창’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나의 언어’에 대해 I 영역을 넓히고 II, III, IV영역을 상대적으로 축소시켜 자신의 언어 및 모습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좀 더 성숙한 언어 사용에 대한 동기와 태도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처: 전국재(2009), 집단상담의 놀이와 프로그램, 시그마프레스.>

4

부끄러운 말은 우리를 낮춰요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의 부정적 영향을 이해한다. •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말하거나 쓰지 않는다. • 자신의 언어생활 속 인격 비하 표현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른다.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격 비하 표현과 그것의 부정적 영향 알기 • 언어생활 속 인격 비하 표현 비판하기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시 예로 제시된 인격 비하 표현을 활용하여 서로를 놀리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사전에 학생들과 약속하고, 활동 중 이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주기

과정		내용	준비물
도입	5분	[영상 시청] 『어서 말을 해』	영상 시청 장비
전개	35분	<p>[활동1] 인격 비하 표현의 예와 부정적 영향 알기 『인격을 낮추는 말, 이런 것들이 있어요』</p> <p>[활동2] 언어생활 속 인격 비하 표현 성찰하기 『인격 비하 표현, 반성 좀 하자!』</p>	활동지 필기구
마무리	5분	[설명] 인격 비하 표현의 부정적 영향 정리하기	공익 광고 인쇄물 또는 파워포인트 (PPT)

도입

05분



이것만은 꼭!

인격 비하 표현은 비속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대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범주에 속합니다. 어떤 말을 듣고 누구는 인격 모독을 당했다고 느낄 수 있는 반면 누구는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격 비하 표현을 정형화하기는 어렵지만, 언어 예절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삼가야 할 표현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학생들이 이와 같은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지도하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부정적 언어 표현에 대한 내용을 지도할 때, 부정적 언어에 대한 새로운 학습 및 각인 효과는 언제나 경계해야 할 점입니다. 따라서 인격 비하 표현 자체를 아는 것보다는 그 표현이 왜 인격을 비하하는 것이 되며 상대방과 자신에게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수·학습 진행

1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이번 시간에는 ‘인격 비하 표현’을 중심으로 우리의 언어생활을 돌아봅시다. 선생님이 공익 광고 한 편을 보여 줄 건데, 영상 시청 후에 (화면에 제시된 질문 목록을 가리키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공익 광고를 본 후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질문 목록]

- 이 광고에서 문제로 삼는 말은 무엇인가요?
- 이 광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연령층의 사람들인가요?
- 왜 그러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등장하게 했을까요?
- 이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이 말을 잘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알려두기

●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우리의 언어생활 속 ‘인격 비하 표현’에 대하여 반성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도입부에서 영상을 감상할 때, 학생들이 영상의 내용을 학습 목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전개 단계에서 모둠 활동이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모둠별로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4명이 한 모둠이 되어 모둠별로 앉습니다. 4명이 안 채워지면 3명으로 구성해도 됩니다.

영상 시청



어서 말을 해

영상 경로

유튜브(<http://www.youtube.com>) → ‘공익 광고 어서 말을 해’ 검색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012년), 어서 말을 해, <https://www.youtube.com/watch?v=9KWSa5WeLDo>>

3 모두 잘 보았나요? 이 광고에서 문제로 삼은 말은 어떤 말들이죠?

학생: 욕설과 은어요.

4 맞아요. 광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던가요?

학생: 우리 같은 학생들이요. 청소년이요.

5 왜 하필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했을까요?

학생: 청소년들이 특히 욕설이나 은어를 많이 써서요.

6 그래요. 청소년들이 갑자기 말을 못 하게 되었지요? 왜 말을 못 하게 되었을까요?

학생: 욕설이나 은어를 빼고는 말하기 어려워해서요.

7 여러분도 그렇지는 않나요? 욕설이나 은어, 혹은 비속어를 짝 다 빼고 말해 보라고 하면 몇 분이나 말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학생: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8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왜 문제가 될까요?

학생: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 이 광고는 청소년들이 욕설과 은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언어생활에서 비속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차시에 다루는 언어 표현은 비속어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비속어 자체에 대한 설명에 너무 긴 시간이 할애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 영상 시청 후 학생들에게 앞서 제시했던 질문에 답하면서 인격 비하 표현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전체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하였을 때 대답하는 학생이 없다면, “모둠에서 앞줄 오른쪽에 앉은 학생들이 차례로 대답해 봅시다.”와 같이 특정 학생을 지목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9 그렇죠.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광고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연관이 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말을 쓰면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줄 일이 적어지겠지요? 또한 아름다운 말을 쓰면 상대방도 나를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준답니다. 즉 욕을 하면 나와 상대방의 인격을 낮추고, 아름다운 말을 쓰면 나와 상대방의 인격을 높이는 길이 되는 것이지요.

● 혹시 광고 속 인물들이 왜 말을 못 하는지 이해하지 못 하는 학생이 있다면 ‘욕설이나 은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장면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을 상기해 주십시오. 또한 학생들이 영상 속에 나온 비속어에만 관심을 가지고 웃거나 따라하다 보면 분위기가 자칫 산만해질 수 있으니 교사가 먼저 제시한 질문과 공익 광고의 문제 제기에 더욱 집중하도록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전개

35분



이것만은 꼭!

인격 비하 표현의 전형적인 예 몇 가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격 비하 표현이라는 것이 고정적인 범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란 점도 이해하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부정적 언어 표현에 관한 내용을 지도할 때는 부정적 언어에 대한 새로운 학습 및 각인 효과를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표현이 왜 인격을 비하하는지와 상대방과 자신에게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하는 활동에서도 이 점에 유의하여 ‘성찰’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합니다.

교수·학습 진행

1 자 그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 볼까요?

학생: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읽는다.)

[학습 목표]

-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의 부정적 영향을 이해한다.
-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말하거나 쓰지 않는다.
- 자신의 언어생활 속 인격 비하 표현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른다.

2 잘 읽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앞서 공익 광고에서 문제를 제기한 비속어를 포함하여 우리의 인격을 비하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상대방과 자신에게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 볼 거예요. 이로써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깨닫고, 이런 표현을 말하거나 쓰지 않도록 자신의 언어생활을 점검하고 반성해 볼 것입니다.

3 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인격 비하 표현에 관한 읽기 자료와 활동지를 나눠 줄 거예요. 읽기 자료를 정독하고, 모둠원들과 토의해 가며 활동지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완성한 후에는 2~3개 모둠의 대표적인 명씩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두기

● 학습 목표를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제시하고, 전개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안내합니다.

● 인격 비하 표현에 대한 읽기 자료를 배부하여 학생들이 한 장씩 보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학생: 네.

- 4 그런데 선생님과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세요. 이제부터 볼 활동지에는 여러분이 익히 듣거나 봐 왔을 가능성이 많은 인격 비하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이 표현들로 학습 활동과 관계없는 장난이나 잡담은 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지킬 수 있겠지요?

학생: 네. 약속할게요.

- 5 좋아요. 그럼 시작합니다.

학생: (활동을 시작한다.)

- 학습 내용 중 접하게 되는 인격 비하 표현을 가지고 학습 활동 외의 장난을 하지 않도록 관찰·지도합니다.

활동 / 1



[인격 비하 표현의 예와 부정적 영향 알기] 인격을 낮추는 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준비물: 활동지(부록 114쪽 참조), 필기구



활동 방법

1. 4명의 학생이 모둠을 이루어 앉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활동지를 배부합니다. 활동지에 있는 읽기 자료를 읽은 후 빈칸을 채워 나가도록 지도합니다. 이때 모둠원과 의논해 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6)에는 제시문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이유도 토의하고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활동지를 완성한 후 모둠에서 대표 한 명을 뽑아 활동지를 읽으며 발표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활동지를 작성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고려하여 2~3개 모둠의 대표가 하면 됩니다. 교실 앞에 나와서 해도 좋지만, 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자리에 서서 해도 좋습니다.

3. 학생들의 발표가 끝나면 교사는 이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를 정리해 줍니다.

4차시 | 활동 1

인격을 낮추는 말, 이런 것들이 있어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도 한가롭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고 마음에 맺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사용하는 자신의 인격에도 낮추게 된다는 점에서 인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때때로, 지인을 비하하는 말, 부정적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 일별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는 물론 SNS, 메신저 등의 모바일 공간이나 인터넷상의 글방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므로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인격을 낮추는 말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주고받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격 비하 표현이라고 여기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비속어가 포함된 말
: 아람네 눈 뜨자마자 무슨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게 들어가?..... ㉠
- 사람의 외모를 농담으로 말하는 말
: 제 얼굴로 어떻게 결혼을 했나?..... ㉡
- 나쁜 의도로 사람을 동물에게 빗대는 말
: 말 먹는 게 꼭 저지 같다..... ㉢
- 부정적인 이미지를 환기하는 표현을 사람에게 빗대는 말
: 여자에 중 찾나?..... ㉣
- 자신의 지위가 더 높음을 강조하는 말
: 난 3백만인데 1백만이 강하게 말대답을 해?..... ㉤

이와 같은 말들은 말을 하는 상황이나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원형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비속어는 위급한 상황에 속된 말이라고 인격을 낮추어 내게 합니다. 비속어는 사람의 인성이나 심리와 무관한 것이므로, 비속어에 대해 평가하는 말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또한, 농담 의도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동물에 빗대는 것이나, 타락이나 절고름 등 부정적인 느낌을 비하하게 하는 표현을 사람에게 쓰는 것 역시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능이나 나이가 더 높거나 많음을 내세우는 말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말을 해야 하고, 이와 같은 표현들은 삼가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114 참여가위는 말의 힘

- 6 여러분 다 읽고 활동지도 풀어 보았나요?

학생: 네.

- 7 자 그럼 이제 발표해 볼까요? 모둠 대표 3명 정도만 자원해서 뭐라고 적었는지 읽어 봅시다.

학생: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활동지 내용을 발표한다.)

- 8 잘해 봤어요. 발표 내용 중 1번에 대한 답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듯이, 어떤 말이 인격 비하 표현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과 개성이 저마다 다른 수많은 사람과 섞여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말이 인격 비하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남들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란 거죠. 인격 비하 표현이 순간적으로 웃음을 줄 때도 있지만, 매일매일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때가 훨씬 더 많아요. 2번과 3번에서 생각해 봤듯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말이 재미있었다고 해서 그대로 친구에게 말한다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학생: 어이없었어요. / 기분이 나빴어요. / 뜬금없었어요. /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 9 그래요. 4번을 통해서도, 인터넷과 메신저를 통한 글도 직접 말하고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지요? 또한 인격 비하 표현을 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학생: 못된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 예의가 없는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 10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니, 인격 비하 표현을 사용하면 그것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손해겠네요. 5번에 답하며 생각했던 점을 잊지 마세요.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게 될 거예요.

학생: 네.

- 11 방송이나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 정확되지 않은 표현이 나오기도 하니 무조건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지요. 말이란 언제나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속어나 외모에 대한 말, 나쁜 의도로 사람을 동물이나 부정적 단어에 빗대는 말, 자신의 지위를 앞세우는 말 등은 상대방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의 인격도 낮추게 되므로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요.

학생: (경청한다.)

- 12 자, 이제부터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생활을 돌아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활동지를 작성하고 모둠원들과 토의한 후

- 학생들이 읽기 자료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인격 비하 표현의 예와 폐해를 짐작할 수 있게 하되, 굳이 다른 인격 비하 표현을 새로 만들어내는 않도록 교사가 중간 중간 점검하며 중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모둠 활동 후의 발표는 수업 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자원하는 학생이 없을 경우 교사가 발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각 활동의 발표자가 겹치지 않도록 고르게 기회를 줍니다.

발표도 해보겠습니다. 발표 후에는 자신의 언어생활을 반성하는 짧은 일기도 작성할 거예요.

학생: 네. 알겠습니다.

활동 / 2



[언어생활 속 인격 비하 표현 성찰하기] **인격 비하 표현, 반성 좀 하자!**

준비물: 활동지(부록 116쪽 참조), 필기구



활동 방법

1. 이전과 같은 모둠원이 앉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활동지를 배부하고 활동을 진행합니다.
2. 활동지 작성 완료 후에는 다른 모둠원들과 바꾸어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특히 (6)과 (7)에 내용을 보충하여 쓰도록 지도합니다.
3. 모둠 활동이 마무리된 분위기면 모둠별로 대표 한 명을 뽑아 발표하도록 합니다. 수업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발표자 수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교실 앞에 나와서 해도 좋고, 자신의 모둠이 있는 자리에 서서 해도 좋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발표자의 발표를 들으며 역시 (6)과 (7)에 더 적을 내용이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도록 지도합니다.
4. 발표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활동지에 반성 일기를 쓰게 합니다. 5줄 정도로 짧게 써도 되지만, 생각의 연결을 위해 반드시 한 편의 글로 작성하도록 지도합니다.

[학생의 반성 일기 실례]

나는 '꺼져!', '형사아!', '닥쳐!'를 많이 쓴 것 같다. 그러나 내 말에 다른 친구들이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그런 말을 하면서 내 기쁨까지 내뿜어진 적도 많다. 또 친구들 사이에서 나에게 대한 이미지도 나뉘어진다. 갑자기 아예 안 쓸 수는 없고 몇 번씩은 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제함도 조금 노력해야겠다.



13 자, 모둠원들과 활동지를 돌려 보고 친구들의 발표를 들어보니, 여러분이 인격 비하 표현을 많이 쓰고 있던가요, 안 쓰고 있던가요?

학생: 제가 훨씬 더 많이 써요. / 다른 친구들이 너무 많이 써서 깜짝 놀랐어요.

14 이번 시간에 듣고 본 인격 비하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온 친구도 있고, 이 정도면 예사다 싶을 정도로 자주 쓰거나 더 많은 인격 비하 표현을 써 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인격 비하 표현으로 인해 상처받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표현을 쓴 사람의 인격은 마찬가지로 비하당해도 될 것처럼 전략해 버리지요. 여러분이 활동지의 ‘부정적 영향’에 정리한 내용을 잊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또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반성 일기를 직접 써 본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인격 비하 표현을 쓰지 않도록 조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 (경청한다.)

●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 혹은 교실 분위기에 따라 공익 광고 인쇄물 전체를 활용하지 않고 그중에서 몇 개의 예만 칠판에 적은 후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활동지의 질문은 학생들이 쉽고 간단하게 답할 수 있도록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외로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경험담을 나누어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발표 인원을 조절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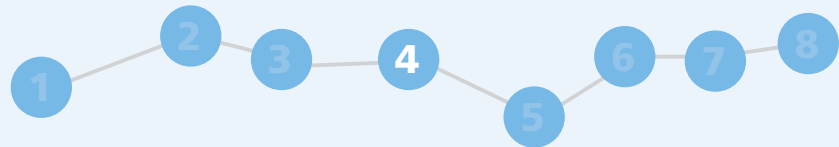
● 참고로, 인격 비하 표현과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할 때 너무 개인적이거나 아픈 경험을 굳이 끄집어내도록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제시된 인격 비하 표현들로 활동지와 관련 없는 사람이 오가거나 소란스러워지지 않도록 교사가 계속 모둠을 돌며 대화를 듣고 적절히 끊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차시의 목적은 새로운 인격 비하 표현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비하 표현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알고 그것을 쓰지 않도록 자신의 언어생활을 반성하는 것임을 반복하여 상기해 줍니다.

● 또한 제시된 공익 광고에 나온 말 때문에 기분 나빠서 활동에 참여하기 싫다는 학생, 자신은 이러한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활동할 필요가 없다는 학생 등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말이 공익 광고로 만들어져 우수 광고로 수상할 만큼 우리 사회에 인격 비하 표현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언어생활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말들을 객관화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보라고 지도해 주십시오.

● 활동 후 선생님의 정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실 분위기를 재빨리 정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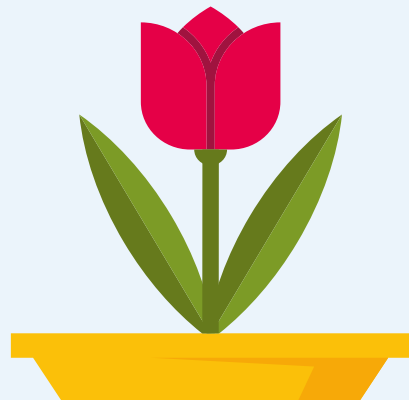
마무리

5분



이것만은 꼭!

이전 단계에서 행한 언어생활에 대한 반성이 자신의 언어생활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일러두기

1 이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했지요?

학생: 인격 비하 표현을 배웠어요. 인격 비하 표현을 찾고 부정적 영향을 생각해 봤어요. 내 언어생활을 돌아보는 반성 일기를 썼어요.

2 네, 잘 말해 주었어요. 인격 비하 표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인격 비하 표현을 사용하면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해 봤죠. 그리고 자신의 언어생활 속 인격 비하 표현을 점검하고 반성했어요. 특히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학생: 공익 광고에도 욕이 나오는 거요. 안 좋은 말을 그 정도로 많이 쓴다는 뜻이잖아요. / 제가 생각보다 인격 비하 표현을 많이 써서 당황스러웠어요. / 반성 일기 쓴 거요. 제 언어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3 그랬군요. 인격 비하 표현이 여러분의 언어생활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었는지 깨달았겠네요. 인격 비하 표현은 다른 사람은 물론 결국에는 나에게도 흠집을 내는 부끄러운 말임을 잊지 마세요.

학생: 네. 알겠습니다.

4 여러분, (공익 광고를 보여 주며) 이 광고를 한번 봐 주세요. 욕이 되는 말, 약이 되는 말. 어느 것이 듣기 좋을까요?

학생: 약이 되는 말이에요.

5 당연히 그렇겠지요. 광고 문구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학생: 잘 쓰면 약이 됩니다.

● 지금까지 한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정리하고 수업 소감을 듣습니다.

● 욕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의미로 오해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욕'과 '약'이라는 단어의 모양이 서로 비슷한데 조금만 바꾸면 '욕'이 아니라 '약'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표현하면 자신과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격을 높여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따라서 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욕은 쓰지 말고 표현을 잘 다듬어서 쓰면 약이 된다는 뜻을 강조해 주십시오.

6 네. 욕이라든가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이 나와 상대방의 인격을 낮출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말하거나 글을 쓰면 나와 상대방의 인격을 높이는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약이 되는 말과 글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다짐했나요?

학생: 네.

7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학생: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광고 감상

잘 쓰면 약이 됩니다

활동 방법

아래의 공익 광고를 큰 인쇄물로 출력한 한 장을 칠판에 붙이거나 교실 텔레비전에 띄우는 방식으로 보여 줍니다. 욕이 아닌 약이 되는 말을 쓰도록 다짐하게 합니다.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014), 잘 쓰면 약이 됩니다>

5

공감적 듣기는 더불어 행복한 관계의 열쇠예요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적 듣기에 대해 이해한다. • 공감적 듣기를 표현할 줄 안다. • 공감적으로 듣는 태도를 증진한다.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적 듣기 이해 • 공감적 듣기 표현 • 공감적 듣기 활동에 대한 피드백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활동의 시간 공유 및 지키기 • 질문 카드 활동을 통한 적절한 피드백 나누기 • 참가자들의 경험과 느낌에 대해 조작적 정리 지양하기

과정		내용	준비물
도입	10분	[활동1] 비언어 마음 읽기 『아우라』 [활동2] 공감적 듣기 스트레칭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전개	30분	[활동] 너와 나의 사이 잇기 『공감적 듣기』	대화 카드
마무리	5분	[활동] 미완성 문장으로 나누는 『오늘 나는』	활동지, 필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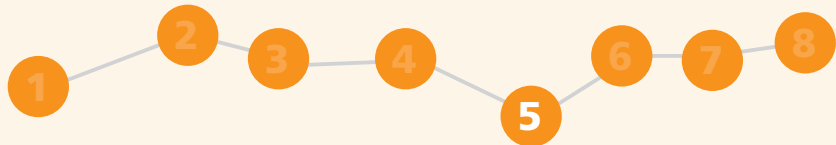
도입

10분



이것만은 꼭!

직접적인 설명보다 질문을 통해 자유롭게 생각을 주고받는 가운데 '공감적 듣기'에 대한 개념 이해를 돕고, '공감적 듣기' 중에서도 '소극적 들어주기' 활동을 통해 직접 '공감적 듣기'에 대해 경험하고 그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교수·학습 진행

1 여러분, 반가워요. 퀴즈 하나 낼게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지요? 맞아요! 듣는 사람이 있지요? 이처럼 언어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은 더불어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한 재미있는 듣기 활동을 해 볼 거예요. 공감적 듣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럼, 들어가기 전에 몸 좀 풀어 볼까요?

일러두기

●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주고받다는 것은 결국, 말하고 듣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상대방에 관심을 갖고 누군가의 말에 집중하여 듣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편이 이러하니 공감적 듣기를 기대하는 일이란 더욱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에서는 '경청'에 초점을 둔 '공감적 듣기'를 경험하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사는 이같이 오늘 수업의 목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바로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활동 / 1



[비언어적 마음 읽기] 아우라

활동 방법



함께 짝을 이룬 두 명은 마주 앉아서 양손을 마주칩니다. 이 상태에서 지도자는 양손을 살짝 떼보라고 한 후 눈을 감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추어 양손 중 원하는 손을 앞으로 내밀도록 합니다. 참가자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양손 중 한 손을 앞으로 뻗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짝과 손이 맞게 될 수도 있고 허공에 손을 뻗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5회 정도 진행하여 짝과 몇 번이나 손이 맞았는지 확인해 봅니다. ‘풍당풍당’과 같은 노래에 맞추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노래와 함께 진행할 경우 노래 박자에 맞추어 손을 뻗도록 하고 얼마나 짝과 손이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다 보면 친구와 얼마나 많이 손을 맞췄는지 세는 것보다 이 놀이를 즐기고 있는 학생들의 웃는 얼굴과 어느새 친밀감을 느끼는 서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 하하하. 서로 마음이 좀 통했나요? 한 번이라도 손뼉을 마주쳤다면 그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없이 누군가의 마음을 예측하여 안다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럼,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내가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3 다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잘 안들어 주면 기분이 어떤가요? 맞아요. 일단 기분이 불쾌하죠. 절교하고 싶을 만큼 속상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떨 때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안 듣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맞아요. 상대방이 판청을 부리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줄 때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느껴볼 수 있도록 활동을 해봅시다.

● 질문을 통해 ‘공감적인 듣기’를 위한 표현 방법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생각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사는 지식적으로 설명하기보다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공감적 듣기’에 대한 개념을 스스로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촉진해 주십시오. ‘공감적 듣기’의 표현에 대해 알아본 다음에는 ‘경청’에 대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짧게 생각을 나누고 활동을 실시하십시오.

[공감적 듣기 스트레칭]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활동 방법

첫 번째, 듣지 않는 사람 2인 역할극

교사는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마주보고 앉도록 하십시오. 짝공은 서로 의견을 나누어 홀수, 짝수를 정합니다. 홀수가 먼저 ‘말하는 사람’이 되고 짝수가 ‘듣지 않는 사람’ 역할을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번 활동은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역할극’이란 점을 강조하며, ‘듣지 않는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은 상대가 누군가 경청하지 않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등 돌리기, 귀 파기, 허공 바라보기 등 탄척을 피우며 듣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다만, ‘듣지 않는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일러두세요.

교사는 학생들에게 1분 30초씩 시간을 주어 역할을 교대하여 해볼 수 있게 하며, 활동을 마치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간략하게 피드백을 나누고 다음 활동으로 이어가십시오. 역할극이라 해도 상대의 반응에 기분이 상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민감하게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혼자 있을 때 주로 하는 것, 최근 가장 재밌었던 일, 요즘 나의 가장 큰 고민 같은 내용으로 줄 수 있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일 경우, 자기소개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두 번째, 듣는 사람 2인 역할극

이번에는 정반대로 상대방에게 온 마음을 다해 공감적인 반응을 보이며 듣습니다. 활동에 들어가기 전 나눈 ‘시선 맞추기’, ‘머리 끄덕이기’, ‘맞장구치기’, ‘감정이입하기’ 등과 같은 공감적 표현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상기시키며 언급해 줍니다. 또한 “짝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 조언,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짝에게 온 관심을 집중하여 짝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있는 그대로 들어보세요.”라고 일러주며 직접 이러한 태도로 짝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교사는 이전 활동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 1분 30초씩 시간을 주고, 교대로 역할을 바꾸어 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을 모두 마치고 나면, 참가자들과 이 활동을 했을 때의 전체적인 느낌과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전개

30분



이것만은 꼭!

‘공감적 표현’에 이은 연계 활동으로 ‘공감적 듣기’ 중에서도 소극적인 듣기를 넘어 적극적인 듣기를 직접 시도하고 경험함으로써 개념을 이해하고, 상호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합니다.



교수·학습 진행

일러두기

1 간단한 역할극을 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을 때와 잘 들어주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대단하죠? 동일한 시간으로 진행되었는데도 실제적으로 느낀 시간도 달랐을 거예요. 이번 활동은 ‘공감적 듣기’ 중에서도 ‘적극적인 듣기’를 실습하면서 동시에 짝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해 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활동 / 1



[너와 나의 사이 잇기] 공감적 듣기

준비물: 공감적 듣기 대화 카드(부록 118~121쪽 참조)



활동 방법

교사는 둘씩 짝을 이루도록 하고, 짝별로 『공감적 듣기 대화 카드』를 한 부씩 나누어 줍니다. 간략하게 활동 방법과 시간을 알려주고 대화 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화 카드 유형에 따라 분리하여 두 사람 사이에 나란히 배열합니다. 참고로, 유형에 따라 카드 색깔을 달리합니다. 둘째, I 유형의 카드에서 임의로 하나를 뽑아 카드 지시에 따라 해 봅니다. 셋째, 차례대로 II, III, IV 유형의 카드도 I 유형의 활동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넷째, I-IV 유형까지 한 번씩 한 다음에는 I 유형으로 다시 돌아가 같은 방식으로 뽑지 않은 카드 중 하나씩 뽑아 진행합니다.

대화 카드 설명

첫 번째 유형, 질문으로 서로 알아보기

: 특정 질문을 가지고 상대에 대해 서로 알아맞힙니다. 가벼우면서도 서로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재밌는 질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유형, 짝에게 들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기(경청 점검)

: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사실인지,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을 받는 활동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상대에 대한 선입견으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보는 활동입니다.

세 번째 유형, 짝의 말을 듣고 재진술하기(요약하기)

: 요약하기를 통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짝의 말에 담긴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재진술함으로써 말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나 문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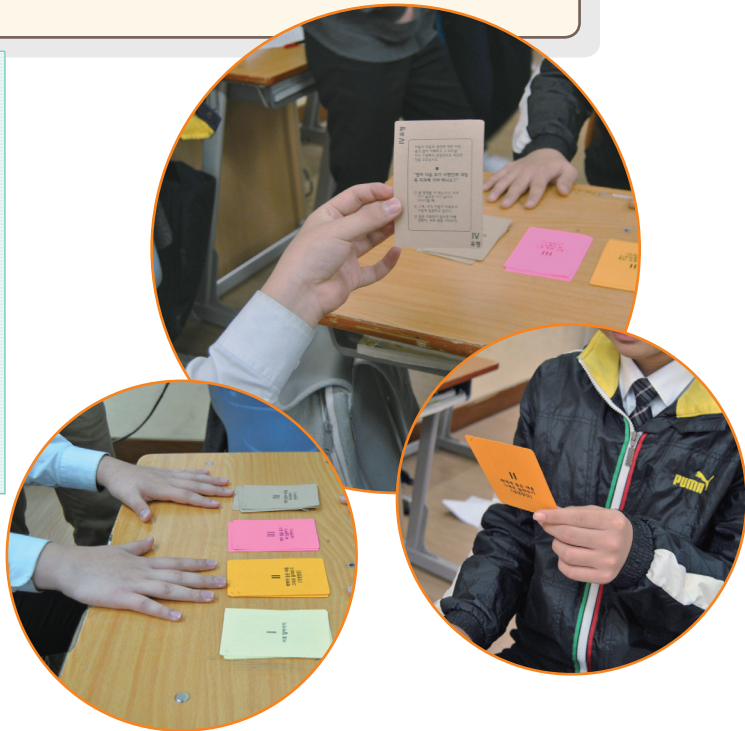
네 번째 유형, 짝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재구성하기(반영하기)

: 반영하기는 상대방이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피드백해 주는 것입니다. 짝과 의논하여 어떤 것이 '반영하기'에 해당되는 말인지 알아맞히는 활동입니다.

집단 활동을 지도하는 지혜

- 교사는 각 유형별로 5~10개 카드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교사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활동 제한 시간을 공유하고 진행 중에 "5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식으로 남은 시간을 알려주어 공유한 시간에 다 같이 마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간단하게 시범을 보여줍니다.
- 카드는 코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래 활용하기 좋으며, 한 쌍에 한 세트의 카드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 IV유형의 답은 활동을 마치고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뒷면 1부터 5까지 정답은 차례대로 2, 2, 3, 3, 3번입니다.

1 유형 서로 알아보기	1 유형 짝에게 들은 내용 그대로 들려주기 (경청 점검)	1 유형 서로 알아보기	1 유형 짝에게 들은 내용 그대로 들려주기 (경청 점검)
1 유형 서로 알아보기	1 유형 짝에게 들은 내용 그대로 들려주기 (경청 점검)	1 유형 서로 알아보기	1 유형 짝에게 들은 내용 그대로 들려주기 (경청 점검)
1 유형 서로 알아보기	1 유형 짝에게 들은 내용 그대로 들려주기 (경청 점검)	1 유형 서로 알아보기	1 유형 짝에게 들은 내용 그대로 들려주기 (경청 점검)
1 유형 서로 알아보기	1 유형 짝에게 들은 내용 그대로 들려주기 (경청 점검)	1 유형 서로 알아보기	1 유형 짝에게 들은 내용 그대로 들려주기 (경청 점검)
1 유형 서로 알아보기	1 유형 짝에게 들은 내용 그대로 들려주기 (경청 점검)	1 유형 서로 알아보기	1 유형 짝에게 들은 내용 그대로 들려주기 (경청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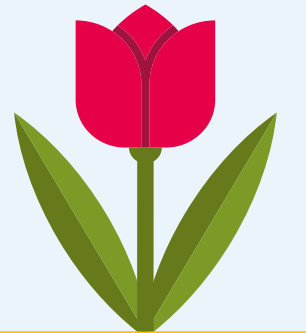
마무리

5분



이것만은 꼭!

전개 단계에서 주로 '언어의 힘'에 초점을 두고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면, 마무리 단계에서는 언어의 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생'에서 왜 '언어'가 중요한지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교수·학습 진행

-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활동지를 나누어 줄 건데 작성해 보고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차시 | 활동2

오늘 나는

1. 오늘 나의 느낌은 _____ 합니다.

2. 오늘 나는 _____ 물(들) 바꿨습니다.

3. 오늘 나는 _____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4. 오늘 나는 _____ 때문에 속상합니다.

5. 오늘 나는 _____ 물(들) 깨달았습니다.

6. 오늘 나는 _____ 이(가) 자랑스럽습니다.

일러두기

● 학생들에게 『오늘 나는』 활동지(부록 122쪽 참조)를 나누어 주고 3분 정도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적은 내용을 나눕니다. 시간을 고려하여 다 적고 난 후에는 6가지 문항 중 1~2가지 정도만 해도 무방합니다.

● 모두 발표를 마치면 어머니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시 한 편(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심순덕)을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담아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마무리합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을 해
손이 부르토고 동상이 걸려 아파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들녁에서 한밤중까지 일하고 돌아온 엄마에게
저녁 빨리 주지 않는다고 짜증 내는 자식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끓어도
맛난 반찬 식구들이 다 먹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다 헤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녀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감적 듣기 설명 자료

○ **공감적 듣기의 개념**
- 공감적 듣기는 정확한 의미와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 듣기 행위이다. 공감적 듣기는 일체의 판단을 유보하고 화자의 입장에서 화자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동적인 듣기 방법이다.

○ **공감적 듣기의 방법**
1. 소극적 들어주기
① 집중하기(focusing)
-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상대를 향해 앉고, 눈을 맞추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적절한 손짓을 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듣고 있음을 의미하는 행위(Chaney & Burk, 1998)	
열린 행위(open behavior)	닫힌 행위(closed behavior)
직접적인 눈맞춤 접촉하기 미소 짓기 고개 끄덕이기 눈을 크게 뜨기 앞으로 기울인 자세 긍정적인 얼굴 표정	빠히 쳐다보기 하품하는 척하기 다른 곳 바라보기 신경질적인 습관 보이기, 안절부절못하기 부정적으로 고개 흔들기 화자로부터 멀어지는 자세 취하기 부정적인 얼굴 표정

② 격려하기(encouraging)
- 상대가 나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고 느낀 화자는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격려하기’이다. “좀 더 이야기해 봐.”와 같이 요청할 수도 있고, “네 생각은 어떠니?”와 같이 질문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그러게 말이야. 정말 그렇고 말고.”, “정말 잘됐다.”, “저런...” 등이 있다. 상대의 말이 끊긴 휴지기에도 묵묵히 기다려주는 태도도 격려하기에 해당한다. 질문 형태의 격려하기는 새로운 정보 요구나 질책을 위함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한다.

2. 적극적 들어주기
① 요약하기(summarizing)
- 말 그대로 화자의 말을 요약하여 재진술해 주는 것이다. 화자의 말을 그대로 재진술해 주는 요약하기를 통해 상대의 말을 분명하게 이해했음을 알릴 수 있고 화자의 현재 상태에 공감했음을 드러낼 수 있다.

아들: 엄마, 나 피곤하고 졸려요.

엄마: 그래, 우리 준석이가 피곤하고 졸리는구나.

아들: 네, 오늘 운동을 해서 그런가 봐요.

② 반영하기(reflecting)

- 화자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피드백해 주는 것이다. 화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경우 '요약하기'와 같은 직접적 재진술이 가능하지만 상대가 장황하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경우 직접적인 재진술이 불가능하다.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상대의 현재 상태에 감정 이입을 하며 의미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들: 엄마,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인데 내일 꼭 치과에 가야 되나요?

엄마: 그래. 우리 준석이가 치료보다 시험에 집중하고 싶구나.

아들: 네. 이번에는 시험공부 제대로 하고 싶어요. 병원에는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요?

<출처: 박재현(2003),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이론, 사회평론.>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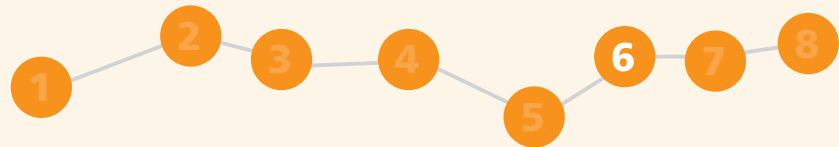
더불어 행복한 말, 어떻게 할까요?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을 위한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 상대방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 건강한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공감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태도를 함양한다.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하기의 중요성 깨닫기 • 상대방을 배려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기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되는 학생 없이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기 • 유쾌하면서도 진지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과정		내용	준비물
도입	10분	[영상 시청] 『한 발짝』	
전개	30분	<p>[활동1] 공감하고 배려하며 말하는 원리에 대해 생각하기 『너와 나,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p> <p>[활동2] 최근 문제가 되었던 상황 속 나의 언어를 바꾸어 표현하기 『이렇게 말하고 들어 보는 게 어때?』</p>	<p>활동지 필기구 A4용지</p>
마무리	5분	<p>[설명]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하기 원리 정리</p> <p>[활동] 자신의 언어생활 성찰</p>	

도입

10분



이것만은 꼭!

공감하며 배려하는 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먼저 인식함으로써 이에 대한 배움과 실행으로 학생 스스로 동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공감하며 배려하는 말의 중요성을 교사가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의 배경 지식과 경험, 삶에서의 일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과 반응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교수·학습 진행

1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언어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고 언어는 우리 자신과 타인, 우리 모두의 삶에 참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하기를 중심으로 ‘언어’와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질문 목록 제시) 앞에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다음 영상 자료를 함께 봅시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질문 목록]

- 이 손수제작물(UCC)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친구의 마음을 알지 못해, 또는 오해로 인해 관계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나요?

일러두기

●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을 위한 기본 원리를 익히고, 이로써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상대방에게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도입부에서 영상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개 단계는 모둠 활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처음부터 모둠별로 앉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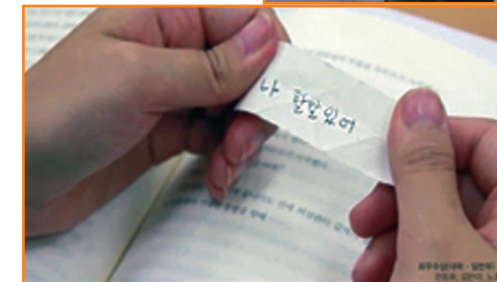
영상 시청



한 발짝

영상 경로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자료 찾기 → 국어 관련 영상 및 방송 → 영상·방송 자료 → 공감과 소통의 청소년 대화 손수제작물 공모전 수상작 모음



<출처: 국립국어원 누리집, ‘공감과 소통의 청소년 대화 손수제작물 공모전 수상작 모음’ 중 2분 55초 ~ 5분 57초>

2 잘 보았나요?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 것 같아요?

학생: 서로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자는 것이요. / 마음을 잘 표현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자는 것이요.

3 네, 그렇죠. 성향이 다른 두 친구가, 서로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또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해 감정이 상하는 장면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친구의 마음을 알지 못해, 또는 오해로 인해 관계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학생: 네.

4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요? 여러 분만의 방법이 있나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학생: 맛있는 것을 사 줘요. / 영상에서처럼 저도 편지를 보내요. 기타 다양한 대답

● 이 작품 외에도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언어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낸 작품들이 많이 있으므로, 지도 시 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손수제작물 작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질문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통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떠올리고 뒤의 활동들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질문이며, 공개적인 발표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표나 직접적인 대답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5 그래요. 각자 서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잘 표현하기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앞의 친구들처럼 갈등 상황에 놓일 확률이 많이 줄어들진 않을까요? 오늘은 그럼,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배려하면서도 내 감정과 처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생: 네.

● 영상 자료를 함께 시청한 후 학생들에게 앞서 제시했던 질문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실제 경험한 의사소통 관련 문제 상황을 떠올리며,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지도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말하기임을 강조해 주며 학습 목표와 연결하고, 이번 차시 수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때, 교사의 질문은 꼭 답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서의 질문임을 유의합니다.

전개

30분



이것만은 꼭!

공감하며 배려하는 말하기의 원리가 담겨 있는 글을 읽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함께 토의하며 해당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읽기 자료에 나타난 대화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의 말하기와 자신을 둘러싼 언어생활을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교수·학습 진행

1 자, 그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 볼까요?

학생: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읽는다.)

[학습 목표]

-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을 위한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 상대방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 건강한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공감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태도를 함양한다.

2 잘 읽었어요. 서로 공감하고 서로의 마음을 잘 소통하면서 배려하며 말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하죠.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동을 걸어 봅시다.

3 자, 여러분에게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하기’에 관한 활동지를 나눠 줄 거예요. 잘 읽고 모듈별로 토론하면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하기’란 어떤 말하기인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일러두기

●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전개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안내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상황 속 나의 언어를 바꾸어 표현하기]

이렇게 말하고 들어 보는 게 어때?

준비물: 학생당 10장씩의 낱말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용지, 필기도구, 활동지(부록 125쪽 참조)



활동 방법

1. 4~5명이 한 모둠을 구성한다.
2. 한 사람당 10장씩 감정 표현 낱말 카드를 만든다.
 - ① 학생들이 문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생각하여, 카드 한 장당 하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낱말을 적는다.
 - ② ‘절다’, ‘안습이다’ 등과 같은 말은 지양하고, 되도록 명확한 감정 표현으로 작성한다.
 - ③ 학생들이 감정 표현을 작성하기 어려워할 때에는, 교사가 ‘참고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감정 표현 어구를 칠판 등에 작성하여 이 가운데 고를 수 있도록 한다.
3. 최근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대화 상황과 그때의 대화를 생각해 보고 활동지에 간략하게 적는다.
4. 활동지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 표현하는 문장 + 그때 느꼈던 자신의 감정 표현하는 문장’으로 문장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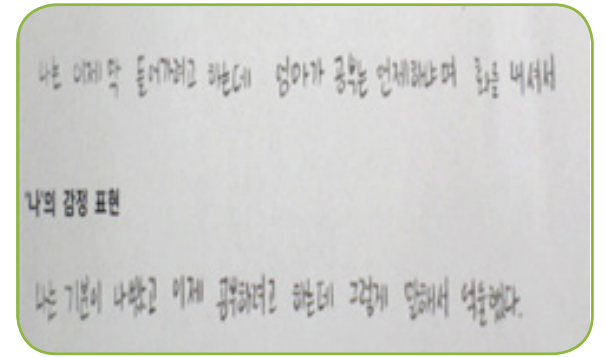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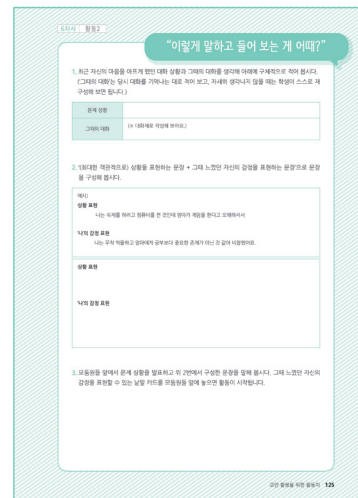
예시)

나는 숙제를 하려고 컴퓨터를 켜었는데 엄마가 게임을 한다고 오해하셔서 (상황 표현)
+ 나는 무척 억울하고 엄마에게 공부보다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비참했어요. (‘나’의 감정 표현)
5. 한 사람씩 돌아가며 문제 상황을 발표하고 위 (4)에서 구성한 문장을 말하며, 그때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낱말 카드를 모둠원들 앞에 놓는다.
6. 나머지 모둠원들(듣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감정 표현 낱말 카드 중에서 당시 발표자가 느꼈을 감정과 유사한 감정 표현 낱말 카드를 하나 선정하여 발표자의 카드 옆에 제시한다.

- ① 낱말 카드를 앞에 제시할 때는 “아, 그때 너는 ‘이러한 (감정 표현 낱말 카드에 적힌 낱말)’ 감정이었구나.” 다시 한 번 말로 표현한다. (‘바뀌 말하기’ 활동)
- ② 앞서 낱말 카드를 제시한 학생과 동일한 낱말은 제시할 수 없다. 빨리 먼저 제시한 사람 순으로 낱말 카드를 제시한다.

7. 발표자는 모둠원들이 앞에 제시한 낱말 카드 중 자신의 감정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의 낱말 카드를 선정해, 해당 카드를 제시한 학생에게 “공감해 줘서 고마워.”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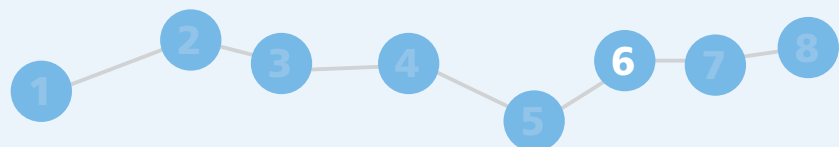
8. 모둠원들이 돌아가며 위 활동을 수행한다.



- 활동의 주안점은 서로의 감정을 명확한 언어로 인식하여 나누고 공감하며 문제 상황을 조율해 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평소에 많이 쓰는 ‘절대’, ‘안습이다’ 등과 같은 말은 지양하고, 되도록 명확한 감정 표현으로 낱말 카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낱말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감정 표현 낱말을 교사가 먼저 제시하여 그중에서 학생들이 선별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언어 성찰 활동이기에 무거운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학생들이 재미있으면서도 진솔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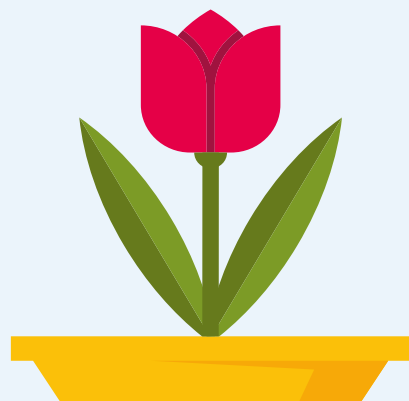
마무리

5분



이것만은 꼭!

앞서 정리하고 활동한 대화 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학생들에게 정리해 줌으로써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소감을 들으며 오늘 수업 내용을 경험적으로 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러두기

- 지금까지 한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정리하고 수업 소감을 들은 후, 이를 바탕으로 공감하는 말하기의 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교수·학습 진행

1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해 주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활동이 끝났네요. 우리 오늘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말해 볼까요?

학생: 공감하며 배려하는 말하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2 네,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될지 정리해 보고, 이를 토대로 그런 말하기를 모둠별로 재미있게 해 보았어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었죠?

학생: 상황을 객관적으로 말하고, 그때의 내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3 그래요, 먼저 상대방을 탓하고 판단하는 말하기 대신,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경험했던 문제 상황에서 여러분이 오늘 했던 것처럼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학생: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해 본다.)

4 자, 오늘 내가 내 상황과 느낌을 말하고 나서 모둠원들이 돌아가며 그때 내가 느꼈을 감정을 다시 다른 말로 한 번 더 말해 주니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오늘 감정 카드를 통해 표현한 것처럼 누가 한번 분명한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누가 해 볼까요?

학생: (학생이 발표한다.)

5 아, 000은 ‘이러이러해서(상황)’ ‘이런(감정)’ 기분이 들었었군요! (선생님이 ‘반영하기’를 통해 학생의 감정을 듣고 말해 준다.) 용기를

내 발표해 준 친구를 위해 모두 박수로 격려해 줄까요?

학생: (박수친다.)

6 맞아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서로 배려하면서 마음을 맞추어 나가고, 상황을 해결해 나간다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 봅시다!

학생: 네! 좋아요!

7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선생님,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감정 표현 카드 작성 관련 연구 자료

느낌을 표현할 때에는 뜻이 모호한 말이나 추상적인 말보다 구체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그거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라고 할 때 ‘좋다’는 말은 ‘설레다’, ‘기쁘다’, ‘마음이 놓인다’ 등 여러 가지 다른 느낌을 의미할 수 있다. ‘좋다’, ‘나쁘다’와 같은 단어로는 듣는 사람이 우리가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알기가 어렵다. 다음 목록은 다양한 감정 상태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느낌말들을 정리한 것이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낌을 나타내는 말]

감격한	기대되는	멋진	자신만만한
감동한	기분이 들뜨는	명랑한	자신에 찬
감사하는	마음이 넓어지는	반가운	자유로운
감탄한	마음이 놓이는	사랑스러운	기운 나는
고마운	마음이 열리는	용기를 얻은	즐거운
고무된	만족스러운	유쾌한	짜릿한
관심이 가는	머리가 핑 도는	의기양양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낌을 나타내는 말]

갑갑한	고독한	낙담한	속상한
걱정되는	고민스러운	낙심한	마음이 안 놓이는
겁나는	기운 없는	냉담한	맥 풀리는
겁에 질린	기운을 잃은	냉정한	무감각한
격분한	긴장되는	마음 내키지 않는	조심스러운
격양된	깜짝 놀란	마음 상한	무관심한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늘리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솔직한 내면을 인정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마셜 B. 로젠버그, 캐서린 한 역(2013), 비폭력대화, 한국 NVC센터 80~83쪽.>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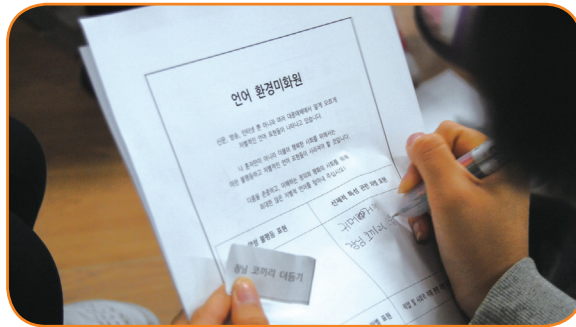
차별의 언어, 나와 너를 가르고 다름을 인정하는 언어, 나와 너를 잇지요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해 이해한다. • 차별적 언어 표현이 주는 심리·정서적 경험을 한다. • 다름을 존중하는 언어적 태도를 증진한다.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적 언어 표현 이해하기 • 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한 상황극 참여하기 • 차별적 언어 사용 관련 활동에 대한 피드백 나누기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사전 철저한 준비(오리엔테이션, 집단 인도 등)하기 • 연기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람, 상황이 되어 '지금-여기'에서 느끼고, 행동하기 • 상황극 종료 후 긍정적인 '상황 벗어나기' 의식 갖기

과정		내용	준비물
도입	10분	[활동] 차별적 언어 표현 찾기 『언어 환경미화원』	활동지 필기구
전개	30분	[활동] 차별적 언어 상황극 『내가 만약』	의자
마무리	5분	[활동] 상황극 피드백 나누기	

언어 환경미화원 정답

유형	사례
양성 불평등 표현	미혼모, 학부형, 처녀작, 시집가다, 마누라, 바깥어른, 집사람 등
신체적 특성 관련 차별 표현	맹인, 귀머거리, 언청이, 절름발이 인재, 병어리 냉가슴, 꿀 먹은 병어리, 똥보, 말라깽이 등
인종, 국적 및 지역 관련 차별 표현	유색인종, 혼혈아, 조선족,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등
직업 및 사회적 지위 관련 차별 표현	미숙아, 신용불량자, 갑상인, 청소부, 가정부, 간호원, 사생아, 철밥통 등



● 교사는 활동을 마치고 차별적인 언어 표현은 성별, 지역, 직업 및 사회적 지위, 인종 및 국적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져 있음을 알려주고 이러한 차별적 표현들이 은연중에 만연해 있음을 언급하며 차별적인 언어 표현에 대한 개념과 실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몇 개 단어의 경우 왜 버려야 하는지(어떤 면에서 차별적인 표현인지) 그 이유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은 참고 자료에서 『국립국어원, 차별적·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결과 발표』 글을 보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사는 최대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학습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표현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주변에서 익숙하게 접하면서도, 잘 모르거나 헛갈리는 불평등 및 차별적 표현들을 신도록 합니다. 그리고 표현을 찾아보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몇 가지 단어의 경우에는 어떤 표현이 올바른지 즉흥 퀴즈식으로 알아보거나, 알쏭달쏭한 단어의 경우에는 어떤 차별적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교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는 차별적 언어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진 후에 다음 활동으로 이어가십시오.

전개

25분



이것만은 꼭!

차별적 언어 표현이 주는 폭력성에 대해 직접 느껴보는 경험을 통해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도모하고, 타인에 대한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촉진하는 데 집단 활동 지도의 중점을 둡니다.

교수·학습 진행

일러두기

1 오늘날 세계는 점점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것만 옳고, 고집해서는 더불어 행복할 수 없지요. 이 시간에는 다문화 사회로서 우리나라 안에서 여전히 언어적인 차별을 당하는 이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지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활동 / 1



[차별적 언어 상황극] 내가 만약

준비물: 빈 의자



활동 방법

앞에 빈 의자를 두고, 언어에 의한 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어떤지 모두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참가자 중 모두를 위해 대표로 차별적 언어에 의해 차별 당하는 사람(중국인 이주 노동자)의 역할을 할 한 명을 앞으로 초대합니다. 자원한 학생은 빈 의자에 앉도록 하고, 중국인 이주 노동자의 입장을 느껴볼 수 있도록 알려 주십시오.

언어 차별 가해자 역할을 할 4~5명 정도 자원을 받아서 의자(피해자)를 둘러싼 형태로 2m 정도 떨어져 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람별로 피해자를 가해하는 사람(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 동료, 이웃, 상사 등)이 되어 그 사람(중국인 이주 노동자)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차별적인 말을 한

마디씩 짧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한 차별적인 말을 지정해 주십시오(예시: ‘떼놈’, ‘짱깨’, ‘사기꾼’, ‘냄새 나’ 등).

준비되면 가해자 역할을 하는 친구들에게 한 명씩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 역할을 하는 친구에게 실제로 가해자가 되어 자신이 말하기로 한 말을 짧게 내뱉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를 좀 더 압박하며 한 걸음 더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사슬처럼 서로 손을 잡고 한 번 더 한마디씩 차별적인 말을 던질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주변을 두 세 바퀴 돌면서 동시에 말하도록 일러 주십시오.

교사는 신체적 폭력이 허용되지 않으며, 여기 있는 모두는 이 상황에서 누구도 관람자나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역할을 하는 참가자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 주세요. 예컨대, 앉아 있는 사람들 중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가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고리(손을 잡고 있는 상태)를 끊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끔 도와줄 수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교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상황을 종료시키고, 대표로 피해자 역할을 해 준 친구를 위해 다 같이 나와서 등을 두드리거나 안아 주면서 격려와 지지의 말을 건넬 수 있도록 합니다. 일종의 ‘상황 벗어나기’ 의식을 한 후, 교사에 의해 피해자 역할, 가해자 역할, 일반 사람들 역할을 했던 참가자들에게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언어들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왜 그 상황에 방관하기만 했었는지, 차별당하는 느낌이 어땠는지 ‘지금-여기’ 관점에서 나누기(sharing)를 통해 나와 우리들의 언어와 모습에 대해 돌아봅니다. 또한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참가자 스스로 차별적 언어의 폭력성에 주목하여 다름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언어인성적 태도를 촉진하도록 합니다.



1. 상황을 종료시키는 교사의 지혜

- 교사는 상황을 종료시킬 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식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상황을 종료하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위해 대표로 주인공 역할을 해준 ○○에게 고마움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가해자 역할을 해준 친구들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라고 수고해 준 친구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 줍니다.
- 특히, 상황에 몰입하여 주인공이 흐느길 때 교사는 당황하기보다 충분히 그 감정을 느껴볼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주인공에게 여기까지 해도 괜찮은지 물어보고, 상황을 종료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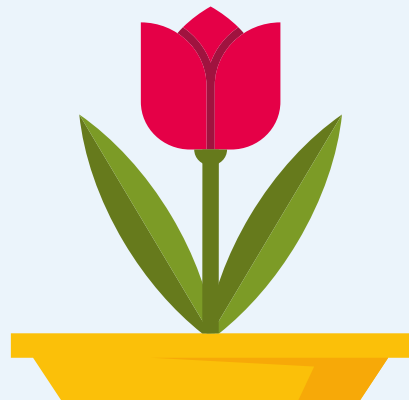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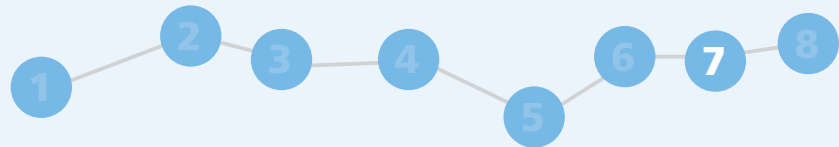
2. 상황 벗어나기 의식

- 상황 벗어나기는 상황 종료 의식에 이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교사는 만약 주인공 역할을 하는 친구가 역할에 몰입하여 한동안 울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어려워한다고 느낄 때, 상황 종료 이후 즉각적으로 다른 친구들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다음으로 서로 안아 주고 따뜻한 격려와 지지의 말을 들려주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 일반적으로는 상황 종료 이후 모두가(특히, 주인공 및 가해자 역할을 한 학생들) 먼지를 털 듯 가볍게 몸을 털고 제자리에서 같이 뛰며 상황 벗어나기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참가자들이 상황과 역할을 벗어날 때, 상황과 역할이 아닌 현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를 돕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무리 활동인 ‘나눔(sharing)’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3. 집단에 해당 인종의 청소년이 있을 경우 외국인이 한국인에 대해 차별적인 언어 표현을 하는 상황으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10분



일러두기

● 교사는 학생들이 둘러앉은 상태에서 극에 대한 나눔(sharing)의 시간을 갖습니다. 나눔(sharing)은 참가자들이 극을 통해 가진 경험을 통합하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에 대해 비난, 조언하거나 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참가자 스스로 그 안에서 느낀 '지금-여기'에서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집단지도자로서 촉진적 태도와 피드백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주인공을 맡았던 친구에게 비교, 평가, 분석, 조언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공감과 지지적인 말로 주인공 역할을 해준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이 있다면 들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사는 나눔(sharing)을 하고 나서 진심으로 임한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며, 관련된 짧은 글이나 한마디를 나누고 마치도록 합니다.

- 1 혹시 주인공 역할을 한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격려의 말이 있나요?
- 2 벽들(언어적 차별을 행했던 가해자들) 안에 갇혀 언어적으로 차별과 폭력을 당할 때 어땠었나요?
- 3 바깥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방관하는 편이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4 벽으로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 5 우리 사이에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들을 종종 하곤 하는데 그런 차별적인 언어들이 어떤 느낌을 주나요?
- 6 활동을 하고 나서 새롭게 느낀 것과 생각한 것이 있나요?
- 7 친구들 사이에서 차별적인 언어 표현들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지요?
- 8 친구들 사이에서 오가는 그런 표현들이 어떤 영향을 주나요?

오늘의 나누는 이야기

1.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2. 나아가 개인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 지역이든 비자치 지역이든, 또는 어떤 주권제한 하에 있든지,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거하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조-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이고 소중한 생명입니다. 한 개인은 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존중받고, 자유를 누리고,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한 생명이 갖는 존귀함과 존엄함을 기억하며 서로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성숙하고 행복한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UN(1948), 세계인권선언 전문>



참고 자료

차별적 언어 표현에 관한 연구 자료

양성 불평등 표현: '미혼모, 처녀작, 학부형'

'미혼모'는 모든 책임과 어려움을 여성에게만 돌리고 상대역인 남성에 대한 명칭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다. '미망인'은 남편이 사망한 여성에 대한 존칭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봉건시대적인 가치관이 숨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여성임을 특별히 드러내는 '여성 예술가', '여성 과학자', '여대생',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처녀작', '처녀출전', '처녀생식',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시집가다', '바깥 어른', '집사람', '학부형', 여성을 비하하는 '여편네', '마누라', '여시' 등이 양성 불평등 관련 표현이다.

신체적 특성 관련 차별 표현: '맹인, 귀머거리, 절름발이, 병어리, S라인'

신체적 특성 관련해서는 신체장애를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느낌을 주는 '맹인', '귀머거리', '병어리', '언청이' 등의 표현, 신체장애를 이용하여 비유하는 '절름발이 인재', '병어리 냉가슴', '꿀 먹은 병어리', '장님 코끼리 더듬기' 등의 표현, 상대적일 수 있는 외모 평가나 선호의 기준을 무시하고 다수의 이름 하에 특정한 외모를 비하하고 놀리는 '말라깽이', '똥보' 등의 표현, 불필요하게 외모를 강조하거나 묘사하는 '얼짱', 'S라인', '꽃미남' 등의 표현이 좀 더 객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인종, 국적 및 지역 관련 차별 표현: ‘유색인종, 혼혈아, 코시안’, ‘동포/교포/한국계’의 자의적 선택, ‘서울로 올라가다’
 백인 중심적인 사고를 담고 있는 ‘유색인종’, 혼혈인을 하나의 인격적 개체로 바라보지 않고 타인종 간에 이루어진 결합의 부산물로만 여기는 ‘혼혈아’, 가난한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 여성들과 그 혼혈 자녀를 차별하고 낙인찍는 ‘코시안’ 등은 특정 인종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들이다. 이와 함께 자국중심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동포/교포/한국계’의 자의적 선택이나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등의 표현, 서울 중심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서울로 올라가다’, ‘지방으로 내려가다’, ‘여의도 면적의 몇 배’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직업 및 사회적 지위 관련 차별 표현: ‘잡상인, 간호원, 신용불량자, 사생아’

고정된 공간과 일정 수준의 자본을 확보하지 못한 상인에게 붙여지는 ‘잡-’이라는 접두사,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쟁이’라는 접미사,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철밥통’ 등의 표현이 특정한 직업 및 사회적 지위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근래 들어 비하적인 의미가 생겨나서 당사자들이 꺼리는 ‘간호원’, ‘청소부’, ‘가정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은데도 사용하여 사회적 낙인을 찍어버리는 ‘신용불량자’,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들을 모자라다고 여기는 ‘미숙아’, 한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사생아’ 등도 고쳐야 할 표현이다.

‘일류, 명문, ‘386세대’, ‘명품’, ‘군단’ 등 사용도 자제해야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일류’, ‘명문’, ‘진보’, ‘보수’, ‘고급’, ‘고위’ 등의 표현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확한 행정구역상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강남’, 예술을 생산하는 주체가 서양인이거나 야만 어울릴 것 같은 ‘현대무용’이나 ‘클래식음악’, 음악의 장르라고 보기에는 모호하고 그것을 즐기는 계층도 사실상 다양한 ‘성인가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비양심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양심적 병역 거부’, 그 범위가 확실치 않고 대졸자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386세대’, 고가품 판매업자의 상술에 이용당하는 듯한 ‘명품’ 등의 표현이 지시 대상이나 의미가 불분명하여 오해를 일으키거나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초-’, ‘최-’ 같은 최상급의 남용이나 ‘군단’, ‘전사’, ‘용병’, ‘세금폭탄’ 등의 전쟁 관련 비유도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자극적이어서 자제해야 할 표현으로 지적되었다.

대안 제시 가능한 용어 권장

가정부, 식모, 파출부 ⇨ 가사도우미	신용불량자 ⇨ 금융채무연체자/금융채무불이행자
간호원 ⇨ 간호사	안내양 ⇨ 안내원
결손가정 ⇨ 한부모가정	양심적 병역거부 ⇨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귀머거리 ⇨ 청각장애인	에이즈환자 ⇨ HIV보균자/감염자
노가다 ⇨ 일용직 건설노동자	잡상인 ⇨ 상인
미망인 ⇨ (고인인 ~의) 부인	집사람 ⇨ 아내
미숙아 ⇨ 이른둥이	처녀 출전 ⇨ 첫 출전
백수 ⇨ 취업준비자, 구직자	처녀생식 ⇨ 단성생식
병어리 ⇨ 언어장애인	청소부 ⇨ 환경미화원
봉급/월급쟁이 ⇨ 봉급/월급생활자	학부형 ⇨ 학부모
시집가다 ⇨ 결혼하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07),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표현 다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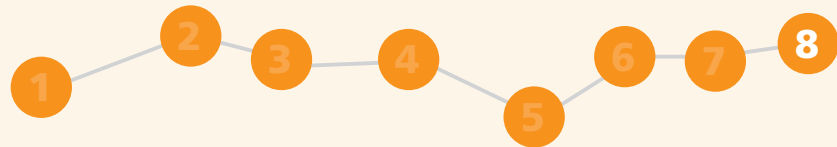
서로 ‘다름’ 뿐입니다 차별 없는 언어생활이 모두를 웃게 합니다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적 언어 태도 및 언어 표현의 실태를 안다. 우리 모두가 개성 있는 언어 사용자임을 깨닫는다.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로 언어생활을 한다.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적 언어 태도 및 언어 표현의 실태 알기 친구의 말 경청 후 특징(말의 빠르기, 억양 등) 찾기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름을 존중하는 언어생활’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전체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기 활동2 진행 시 서로를 놀리거나 비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과정		내용	준비물
도입	5분	[광고 감상] 『살색 크레파스』	이미지 재생 장치
전개	35분	[활동1] 차별적 언어 태도 관련 영상 보고 토의하기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활동2] 친구의 말소리 듣고 특징 찾기 『“사랑해, 너희는 모두 나의 소중한 친구야!”』	영상 재생 장치 활동지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 간이 가림막
마무리	5분	[설명] 활동의 의미 정리: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 없는 태도로 언어생활에 임해야 함	

도입

5분



이것만은 꼭!

이번 차시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나와 다른’ 사람의 언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언어를 존중하는 태도는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름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언어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도입에서는 ‘살색 크레파스’를 제재로 한 공익광고를 통해 학생들이 ‘나와 다름을 차별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살색’이 그러하듯 단어 하나에도 차별적인 생각이 담겨 있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교수·학습 진행

1 자, 여기 광고물 한 장이 있죠. 잠시 감상해 볼까요? 제목, 그림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럼 이번엔 다음 [질문 목록]을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까요? 각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해요.

학생: 네.

[질문 목록]

- 각각의 크레파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이 광고를 어떤 사람에게 보여 주면 좋을까요?
- 크레파스의 ‘살색’ 표기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더는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살색이 ‘차별적 표현’인 이유를 광고물 속 세 개의 크레파스와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세요.

일러두기

● 본격적인 모둠 활동은 전개 활동부터 시작되지만, 원활한 수업 전개를 위해 수업 시작 전에 6명 정도로 모둠을 구성하고 자리를 배치합니다. 서로 잘 모르는 학생들이 한 모둠이 되었다면 잠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 공익 광고 ‘살색 크레파스’를 화면에 띄우고 잠시 감상하게 합니다. 이후 질문을 공개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간을 제공합니다. 충분히 생각하게 한 후 ‘(교사)발문-(학생)발표-(교사)첨언’의 순서로 진행하며 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함께 정리합니다. 또, ‘살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광고 감상



살색 크레파스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001), 살색 크레파스>

2 다들 생각을 잘 정리했나요? 세 개의 크레파스가 인상 깊죠? 각각의 크레파스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학생: 피부색이요. / 인종이요, 백인, 황인, 흑인이요.

3 네 맞아요. 그런데 이 광고는 왜 세 개의 크레파스를 ‘모두 살색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보여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학생: 다들 가운데 있는 살색만 살색이라고 생각하니까요. / 우리가 흑인을 무시하니까요. / 모두 똑같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요.

4 그렇죠. 우리와 피부색이 ‘다름’ 뿐 모두 동등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것 같죠? 그렇다면 이 광고를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 주면 효과적일까요?

학생: 다른 인종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요. / 차별하지 말라고, 똑같다고 말해 줄 수 있어요.

● 도입에서는 ‘우리와 다른 피부색(인종)에 대한 차별적 태도’ 및 ‘살색’이라는 단어가 가진 차별적 관점에 초점을 두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광고물 감상 후 앞서 제시했던 질문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합니다.

● 선생님 참고
○ 살색
‘살색 스타킹’, ‘살색 크레파스’ 등 ‘살색’이라는 표현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부색과 닮은 색상을 뜻하는 단어는 ‘살구색’입니다. ‘살구색’은 살구의 빛깔과 같이 연한 노란빛을

5 네, 잘 말해 주었어요. 세 개의 크레파스는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어떤 것이 좋은 색이고, 어떤 것이 나쁜 색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저 다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나와 다른 것, 우리와 다른 것, 또 다수와 다른 것’을 ‘이상한 것, 틀린 것, 덜 좋은 것’으로 보고 배척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광고는 그런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네요.

6 마지막으로 ‘살색’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지금은 크레파스 색깔 표기에 ‘살색’을 쓰이지 않아요. 대신 ‘살구색’을 쓰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학생: 살색이 다 다르니까요. / 살색이 검은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곤란하니까요. /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도 많으니까요.

7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네요. 광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피부색이 달라요.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조금씩 피부색이 다르죠.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니 특정 색을 ‘살색’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살색이 살구색과 많이 다른 사람은 ‘살색 아닌 살색’을 가진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되어 버리니까요.

8 우리 이 광고 하나로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번 차시에서는 ‘다름’을 차별하지 않는 언어생활에 대해 배우게 될 겁니다. 선생님은 오늘 활동을 마친 후 여러분이 나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뽕 분홍색을 말합니다. ‘살색’은 ‘살갗의 색깔’이라는 뜻으로 “햇볕에 너무 오래 있었는지, 네 살색이 변했다.”처럼 씁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우리나라에서 황인종의 피부색의 뜻으로 사용되던 ‘살색’이라는 단어가 인종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2005년부터 ‘살구색’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살색’은 ‘살갗의 색깔’이라는 뜻으로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갈무리할 우리말, 단어장, 『첨표, 마침표』〉

○ 살색 → 연주황색 → 살구색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외국인들이 크레파스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정 색을 살색으로 명명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며 진정을 내자 개정을 권고했다. 이후 기술표준원은 KS표준에서 살색을 없애고 문구류 등에서는 살색의 계통색 명칭인 ‘연주황’을 사용했다. 그러나 초중등학생이 2004년 8월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인 ‘연주황’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다.”라며 진정을 제기한 이후 ‘살구색’으로 최종 확정됐다.
〈출처: 연합뉴스, 2005. 5. 20. ‘살색’을 ‘살구색’으로 바꾼 소녀들〉

전개

35분



이것만은 꼭!

나의 언어와 타인의 언어 모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제공되는 영상은 지역 방언 화자를 대하는 서울말 화자들의 반응을 보여 줍니다. 지역 방언 화자와 서울말 화자 모두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해 보고, 궁극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대중매체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지역 방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하나 이질감 표출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비표준어를 쓰는 사람을 비하하는 태도’를 초점화하기보다는 ‘자신과 다른 특징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학습 진행

1 자 그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 볼까요?

학생: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읽는다.)

[학습 목표]

- 차별적 언어 태도 및 언어 표현의 실태를 안다.
- 우리 모두가 개성 있는 언어 사용자임을 깨닫는다.
-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로 언어생활을 한다.

2 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활동과 관련된 학습지를 나눠 줄 거예요. 일단 학습지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함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해요.

학생: 네.



일러두기

● 교사는 ‘누구나 자신의 언어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또 타인의 언어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언어 인권 (Linguistic human right)’ 개념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진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 이 수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집단의 성격에 따라 활동의 초점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표준어를 쓰는 화자로 구성된 집단인 경우 비표준어 사용자의 언어적 권리를 존중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지역 방언을 쓰는 화자로 구성된 집단인 경우 타 지역의 언어를 쓰는 사람의 언어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표준어 제정의 의미를 알고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지도합니다.
가능한 상황이라면 ‘선생님 참고 자료’의 소수 언어 문제 읽기 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언어 태도 관련 사례 보고 토의하기]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준비물: 활동지(부록 128쪽 참조), 필기구



활동 방법

1. 활동 시작 전 활동지를 배부합니다. 한 모둠에 한 장씩만 배부합니다. 먼저 활동지의 내용을 살핀 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2. 활동지를 완성한 후 모둠의 대표 발표자가 앞으로 나와 발표합니다. 필요한 경우 교사는 추가 질문이나 첨언을 합니다. 전체 발표가 끝나면 활동의 의의를 되새길 수 있도록 정리 발언을 해 줍니다.
3. 질문(4)와 관련하여 ‘표준어, 방언’의 사전적 의미를 검색하는 작업은 교사가 주도합니다. 학생들이 질문(3)의 활동을 마무리해 가면 학생들을 집중시켜 교사가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을 검색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도록 합니다.(학생들에게 활동을 맡길 경우 불가피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가 주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과서 활용 1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1. 가짜는 자판에서 온 친구들에게 ‘집’을 팔고 있다고 말하는가? 물론 아니다. 이제 책에는 ‘집’을 팔고 있다고 하고, 허구인 사실 일부로 대입을 한다. 책에는 왜 허구가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 받아 학생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글은 → (2)~(3)
 학교 학습 일기나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은 글은 → (2)~(3), (5)~(6)

2-1. 평소 지역 생활하는 쓰는 사람들을 보면 텔레비전이나 영화 프로그램 어떤 생각이 드는가? 즉 가짜와 같은 태도를 가져 본 적은 있는가 적어 보자.

2-2. 평소 다른 곳에 가면 어디서 생활하는 쓰는 사람들을 보면 텔레비전이나 영화 프로그램 어떤 생각이 드는가? 즉 가짜와 같은 태도를 가져 본 적은 있는가 적어 보자.

3. 허수아비를 표본처럼 사용하거나 노획한 것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 주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 이유도 함께 적어 보자.

4. 자판에, 방판의 사진의 의미를 확인하고, 표본어, 방판 사용에 대한 물음에 대입에 대한 모든 행동의 양상을 정리하여 적어 보자.

128 일제 강점기 집사들의 기록



여수 대 전라도 사투리 대결

영상 경로

유튜브(<http://www.youtube.com>) → ‘여수 대 전라도 사투리 대결’ 검색



〈출처: Youtube, 응답하라 1994 - 여수 대 전라도 사투리 대결, <https://www.youtube.com/watch?v=pkjwROO7VJg>〉

- 3**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각 모둠에서 한 명씩 나와 모둠 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어느 모둠이 먼저 발표해 볼까요? 네, OO 모둠 발표자 앞으로 나오세요.

학생: 우선, 해태가 짜증이 난 것은 기태가 시골에서 온 아이들의 말투와 단어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애기할 때 계속 킁킁 웃고,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죠. / 사실 ‘컵 줌’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놀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 4** 네, 잘 봤네요.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상대의 언어를 궁금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해태가 그렇게 짜증을 내지 않았겠죠. 기태에게는 알게 모르게 자신이 표준어를 쓴다는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 ②-1에 답한 경우

- 5**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대와 같은 감정을 가져 본 적은 없었나요? 계속해서 발표 들어 볼게요.

학생: 촌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텔레비전을 봐도 촌스러운 사람들이 방언을 쓰고 하나까. 그런데 그런 태도가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 ③에 답한 경우

- 6** 그래서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를 고치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발표 들어 볼게요.

학생: 별로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는데, 서울에 가거나 하면 조금씩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또 대학 가게 되면 말투를 바꿔야 하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쓰는 말이 정겹고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오히려 서울말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좀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7** 네. 맞아요. 여러분들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그런데 서울말을 쓰는 사람들은 진실성이 없다는 것도 편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에 살던 친구가 지방으로 전학 가서 언어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는 내용을 담은 영화나 드라마도 간혹 볼 수 있죠? 어쩌면 우리 모두 나와 다른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 모둠 내에서 질문 목록에 대해
충분이 이야기를 나누게 한 후 이를
정리하여 발표하게 합니다.

- 서로 미루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자는 발표 직전 교사가 정합니다.
- 예) 모둠원 중 생일이 가장 빠른 사람, 신발 크기가 가장 큰 사람 등

8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종합 의견을 들어 볼까요?

학생: 상황에 따라 표준어를 사용하면 좋은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자신이 원래 쓰던 언어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언어든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써 주어야 합니다. 물론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니까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지만 지역 방언이 비하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9 맞아요. 여러분, ‘언어 인권’에 대해 들어 봤나요? 누구나 자신의 언어를 차별 없이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표준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어떤 언어를 쓰느냐를 두고 타인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타인의 언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니까요. 반대로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주체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10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언어의 다름으로 인해 차별받고 상처받아서 안 되겠죠? “나의 언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다른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는 존중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 학생들이 영상 자료에서 ‘타인의 언어(지역 방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친구들의 태도를 지적할 수 있도록 하되, 이것이 무조건적인 ‘방언 수호’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언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이번 차시의 목표이긴 하나, 교사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표준어 사용의 필요성 또한 함께 지도하여야 합니다.

● 선생님 참고

○ 언어 인권(Linguistic human right)

개인마다 자신이 의사소통적으로 선호하는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그러한 언어적 선택과 사용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고 심지어 교육과 문화 활동도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할 수 있는 권리(Wright, 2007).



이것만은 꼭!

가림막 뒤에 가려진 친구의 말을 듣고 말소리의 특징을 포착하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친구들이 ‘목소리 크기, 빠르기, 억양’ 등 다양한 면에서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언어 사용자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이해의 대상을 ‘우리 사회 전체’로 확장시켜 학생들이 다양한 조건을 가진 화자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8차시는 언어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마지막 차시이기도 합니다. “사랑해, 너희는 모두 나의 소중한 친구야!”라는 문구의 의미를 되새겨 말을 통해 마음을 주고받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활동 / 2



[친구의 말소리 듣고 특징 찾기] “사랑해, 너희는 모두 나의 소중한 친구야!”

준비물: 활동지(부록 129쪽 참조), 필기도구



활동 방법

- 교사는 학생들 개개인에게 활동지를 배부하고 활동 방법을 안내합니다.
- 각 모둠에서 말하기 대표 한 명을 뽑습니다. 대표들은 가림막 뒤로 들어갑니다. 가림막 뒤에 숨은 대표들은 다른 학생들이 말하기 순서를 알지 못하도록 가림막 뒤에서 자리를 이리저리 바꿉니다.
- 가림막 뒤의 학생들은 차례로 다음 내용을 세 번 반복하여 말합니다.(학생이 원할 경우 정해진 문장(“사랑해, 너희는 모두 나의 소중한 친구야!”)을 한 번만 말한 후, 나머지 문장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한 사람의 말이 끝날 때마다 ‘방금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소리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적습니다.
- 가림막 뒤에서 말하기가 모두 끝나면 가림막을 걷고 얼굴을 확인합니다. 교사는 학생 3~4명에게 활동지 1번의 내용을 발표하게 합니다.(가림막 뒤에서 말을 했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자신을 알아맞췄는지, 또 자신의 말소리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민수 목소리 맞힌 사람? 민수는 말할 때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 5의 발표가 끝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활동지 (2)번 소감문을 쓰게 합니다.
- 학생들 3~4명에게 소감을 발표하게 하고 교사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한 명도 같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음을 주지하고, ‘조금, 그리고 조금 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말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더불어 “사랑해, 너희는 모두 나의 소중한 친구야!”와 같은 따뜻한 발언이 서로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활동 2

사랑해, 너희는 모두 나의 소중한 친구야!

1. 말소리를 듣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상하여 적어 보세요. 또, 말소리를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 가지 이상 적어 보세요.

말하는 사람	특징	
예시	남자 여성	알리아가 들려주는 / '다' / '아' / '기' / '말'이 빠짐 '말'이 빠짐
1		
2		
3		
4		
5		

2.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활동 소감을 적어 보세요.

(필수)

○내 말소리의 특징 대해 서술해 알기 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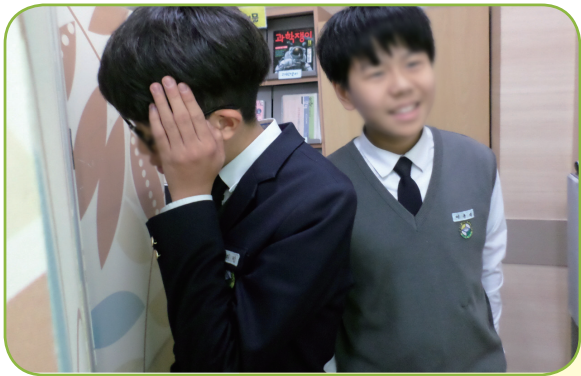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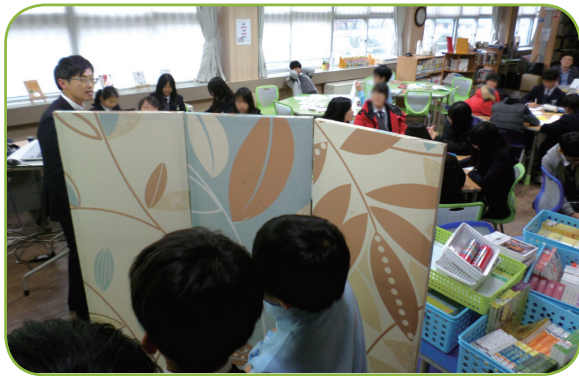
○친구들에게 '사랑해, 너희는 모두 나의 소중한 친구야!'라고 말할 때의 기분

(선택)

○내가 앞으로 경험하는 활동을 통해 서술해 알기 된 점

○친구들에게 '사랑해, 너희는 모두 나의 소중한 친구야!'라는 말을 들을 때의 기분

2021 활동용 예민 활동지 129



11 어때요,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에만 집중해 보니 한 명 한 명의 소리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죠?

학생: 네.

12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어느 누구도 남들과 똑같이 말하지 않아요. 다들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배척하려고 하죠. 언어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언어는, 그리고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은 차별의 대상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서로의 언어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줄 때 우리 모두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활동을 마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개성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13 우리가 오늘 수십 번 들었던 말,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해 볼까요?

학생: 사랑해, 너희는 모두 나의 소중한 친구야!

14 어때요? “XX야, 너 정말 짜증나!”라는 말보다 훨씬 듣기 좋죠? 앞으로도 소중한 친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말을 주고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 활동1에서 언어의 다름을 차별적 시각으로 보는 태도의 문제점을 살펴봤음을 상기하고 다음 활동을 안내합니다.

● 소리에 집중해야 하는 활동이므로 정숙한 가운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말소리의 특징을 찾는 활동이 ‘발음이 이상하다, 못 알아듣겠다.’와 같은 단순한 비난이 되지 않도록 진지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활동 시작 전 시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학생에게 가림막 뒤에서 말하도록 한 후 교사가 이 학생의 말하기 특징을 꼼꼼하게 설명해 줍니다.

● 말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사가 적절히 말하기 발표자를 선정하여 활동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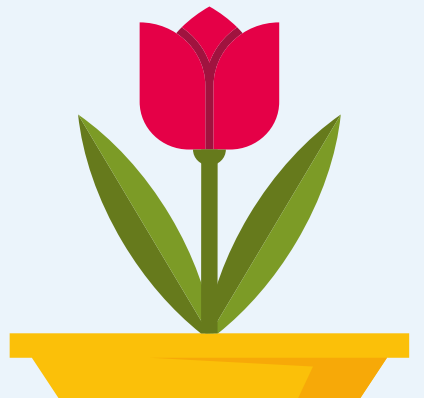
마무리

5분



이것만은 꼭!

지금까지 한 활동의 의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언어를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주지합니다.



일러두기

교수·학습 진행

1 우리가 오늘 어떤 활동을 했죠?

학생: 지역 방언 무시하는 영상 보고 토의하구요. / 목소리 듣고 친구 알아맞히구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의 특징 이야기하구요.

2 네, 잘 말해 주었어요. 우리는 ‘살색 크레파스’에 담긴 차별의 태도를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조금 낮은 사람들”이라는 영상에서 지역 방언을 쓰는 친구를 무시하는 몇몇 친구들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살펴봤었죠. 이런 차별의 태도가 왜 생긴다고 얘기했었죠?

학생: 그냥 다른 건데, 자기와 다른 걸 자연스럽게 인정하지 않고 나쁘다고 생각하니까요.

3 맞아요.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신과 다른 것을 배척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했던 활동 생각나죠? 반 친구들이 “사랑해, 너희는 모두 나의 소중한 친구야!”라는 동일한 내용을 말했어요. 그런데 어땠나요? 누구 하나 똑같이 말한 사람이 있었나요?

학생: 아니요, 모두 달랐어요.

4 맞아요. 어느 누구도 똑같은 소리로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달랐죠. 우리 사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나와 다름’을 ‘차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점을 명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5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수 언어 문제 관련 읽기 자료

국립국어원(2015), 당신은 상하이 방언을 구사할 수 있습니까?, 『침표, 마침표』 “놀라운 우리말”,
<http://www.urimal365.kr/?p=20908>

국립국어원(2014),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살이 분단 언어의 짐을 떠안고 가다, 『침표, 마침표』 “놀라운 우리말”,
<http://www.urimal365.kr/?p=10078>

차별과 편견이 담긴 표현 관련 읽기 자료

국립국어원(2015), 살색의 바른 표현, 『침표, 마침표』 “쉬어가는 우리말”,
<http://www.urimal365.kr/?p=15972>

국립국어원(2013), 남편 따라 떠나란 말인지(미망인), 『침표, 마침표』 “쉬어가는 우리말”,
<http://www.urimal365.kr/?p=7942>

국립국어원(2013), 서울, 서울, 서울, 『침표, 마침표』 “쉬어가는 우리말”,
<http://www.urimal365.kr/?p=3221>

국립국어원(2013), 꿀 먹은 벙어리, 『침표, 마침표』 “쉬어가는 우리말”,
<http://www.urimal365.kr/?p=3221>

국립국어원(2013), 절반만 한국인?, 『침표, 마침표』 “쉬어가는 우리말”,
<http://www.urimal365.kr/?p=3221>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발음) 및 교육 관련 영상

EBS(2006), EBS 톨레랑스 코시안이 아닌 한국인으로 아이들 키우기,
<http://www.ebs.co.kr/tv/show?prodId=472&lectId=1168470>

부록

교안 활용을 위한 활동지

(모든 활동지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 → 자료 찾기 → 연구 결과 → 연구 보고서 게시판

참고 문헌

빨리 풀어 오세요

1. 모둠에서 가장 높은 음을 내는 사람을 알아보십시오.
2. 모둠원들은 소지품 및 주변에 있는 물건들(시계, 양말, 학용품 등)을 사용하여 '언어의 힘'이라는 글자를 만드십시오.
3. 모둠에서 한마디라도 5개 국어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4. 순우리말, '뽀뽀사랑광'은 무슨 의미일까요?
5. 어떤 유명한 박사가 지하도를 지나가는데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달러를 주지만 하고 연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박사는 달랐습니다. 박사와 거지의 다음 대화를 통해 거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거지의 구걸에 박사가 요청합니다. “아까 준 1달러의 대가로 연필을 주세요.” 이 말을 듣고 거지가 속으로 ‘치사한 놈, 1달러밖에 주지 않은 놈이 연필을 달라고 해. 쪼뼛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연필 한 자루를 건넸습니다. 연필을 받은 박사는 거지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당신도 이제 나와 같은 사업가요. 당신은 더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

6. 다음은 어린 시절, 선생님에게조차 ‘바보’라는 소리를 들던 자식에게 어머니가 늘 들려주던 말입니다. 훗날 이 사람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유명한 과학자가 되지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넌 세상의 다른 아이들에게는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단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 길을 찾아 가야 한다. 넌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① 아이작 뉴턴 ② 아인슈타인 ③ 토머스 에디슨

7.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군인에게 그 곁을 지나가던 연예인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음료수 두 캔과 아이스크림을 건네며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그 군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충성! 수고하세요.”

우리 생각:

언어의 힘 | 읽기 자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골목 안에는 고만고만한 한옥 네 채가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한 집에 아이가 보통 네댓은 되었으므로 그 골목길에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잡아 열 명이 넘었다. 학교가 파할 때쯤 되면 골목 안은 시끌벅적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어머니는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딱히 놀이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고무줄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는 한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내가 답답할까 봐, 미리 내게 어디에 숨을지를 말해 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집은 골목 안에서 중앙이 아니라 구석 쪽이었지만 내가 앉아 있는 계단 앞이 친구들의 놀이 무대였다.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나는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 느낄까 봐 친구들이 배려해 준 것이었다.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는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깨엿 장수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찢렁이며 내 앞을 지나더니 다시 돌아와 내게 깨엿 두 개를 내밀었다. 순간 그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것인지는 몰랐다. 돈 없이 깨엿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 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느 방송 채널에 오래전 학교 친구를 찾는 프로그램이 있다. 한번은 어느 가수가 나와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찾았는데, 함께 축구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허리가 36인치나 되는 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뚱뚱해서 잘 뛰지 못한다고 다른 친구들이 축구 팀에 끼워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그 가수가 나서서 말했다.

“괜찮아, 그럼 애는 골키퍼를 하면 함께 놀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는 골키퍼로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했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따뜻한 말과 마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하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 팀이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우리 선수들을 향해 외

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 벨을 울리지 못하면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 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감아 주겠다.’라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라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마라.’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 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참으로 신기하게도,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난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더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사방치기: 어린이 놀이의 하나. 땅바닥에 여러 공간을 구분해 그려 놓고, 그 안에서 납작한 돌을 한 발로 차서 차례로 다음 공간으로 옮기다가 정해진 공간에 가서는 돌을 공중으로 띄워 받아 돌아온다.

**선의: 착한 마음. 좋은 뜻.

- 장영희, ‘괜찮아’

생각해 볼 문제

1. ‘나’는 깨엿 장수로부터 ‘괜찮아’라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나요?

2. ‘괜찮아’라는 말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 보세요.

○ 읽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언어의 힘 | 읽기 자료 2

언어의 숨겨진 힘

‘바른 생각’과 ‘바른 말’, 무엇이 먼저일까요?

말은 그 사람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말속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른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과 통하는 것으로, 우리의 관념이 언어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언어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즉, 바른 생각을 해야 바른 말을 할 수 있지만, 바른 생각은 또한 바른 말을 쓸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내: (걸레로 방을 훑치고 있다.)

남편: 청소하는 거야?

아내: 네.

남편: 도와줄까? 걸레 줘 봐. 내가 닦아 줄게.

아내: 고마워요.

힘들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남자의 태도가 가정적이고 우호적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대화를 다시 살펴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반말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존댓말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연상이고 여성이 연하인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반말을 쓰고 아내는 남편에게 존댓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아내를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언어에서 ‘평등한 부부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남편은 집안일을 하겠다고 말할 때에도 “도와줄까? 걸레 줘 봐. 내가 닦아 줄게.”라고 말했습니다. 말 속에 ‘해 주다’라는 표현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 준다’는 것은 이미 그 일이 본래 자신의 몫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듣고 자란 가정의 아이들은 집안일은 아내, 즉 여성의 몫이고 남편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인식과 생각, 크게는 가치관까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도 바뀝니다

‘일관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번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원리인데, 심리학자들은 이 일관성의 법칙이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말로 일단 내뱉고 나면, 그 말과 일치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원리를 뒷받침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연구원이 개인 물품을 해변에 둔 채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연구원이 도둑으로 가장해 바다로 들어간 연구원의 물건을 훔쳐 달아냅니다. 이 실험의 참여자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으로, 실험 참여자가 도둑을 저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스무 번의 실험에서 도둑을 저지한 사람은 단 네 명뿐이었습니다. 상황을 바꾸어 바다로 들어가던 연구원이 옆에 있던 실험 참여자에게 “제 물건을 좀 봐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그럼요, 문제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구원이 바다로 들어가자 도둑 역할을 맡은 연구원이 앞선 실험과 동일하게 물건을 훔쳐 달아났는데, 이번에는 20명 중 19명이 자발적으로 도둑을 저지하고 도둑을 다그쳤습니다. 본인이 ‘물건을 봐주겠다’고 말했으므로 그 말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바른 말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인 가족 간이나 부부간에는 일상적인 말투나 호칭 등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며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도덕성, 양성평등, 상호 존중 등 사람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국립국어원, ‘언어의 숨겨진 힘 ⑧ 당신은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볼 문제

1. 윗글에서는 ‘말’과 ‘생각’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나요?

2. “바른 말을 쓸 때 바른 생각이 가능하다.”라는 주장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적어봅시다.

언어의 힘 | 읽기 자료 3

언어는 그저 ‘말’일 뿐 ‘행동’은 아니라고?

‘말의 힘’에 대한 밥 실험

지난 5월 서울 성수고등학교 권정은 선생님은 아이들과 말의 힘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하여 2개의 유리병으로 실험을 했다. 밥을 넣어 둔 한쪽 유리병에는 “감사합니다”를 쓰고 다른 한쪽에는 “짜증나”를 써 놓았다. 두 개의 유리병을 교실 뒤에 놓고 학생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학생들이 한쪽에는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 등의 긍정적인 말을, 다른 한쪽 병에는 ‘미워’, ‘싫어’, ‘짜증나’ 등의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였다.

3주 동안의 실험 후, 실험 결과

선생님도 아이들도 모두 놀랐다. “감사합니다”를 써 놓은 병을 열어 보니 밥에 구수한 냄새가 나는 누룩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짜증나”라고 써 놓은 병을 열어 보니 밥에 숨이 막힐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나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 김진경 새벽편지 가족, 2011년 10월 11일 사랑발 새벽편지 누리집 중에서-

나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말의 힘에 대한 설명을 자주 하곤 하였다. 그때마다 학생들에게 보여 주었던 자료 중 하나가 위에 소개한 말의 힘에 대한 밥 실험이다. 이 내용은 한국교육방송(EBS)이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소개한 적도 있었다.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학생들은 말의 힘을 쉽게 믿지 않았다. 남의 말을 쉽게 믿지 못하는 학생들과 진실을 가르쳐야 할 선생과의 간격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난 직접 실험을 해서 학생들에게 보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실험 결과를 교지에 실어서 내 수업 듣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진실을 가르쳐 주리라고 다짐하였다.

“얘들아, 내가 직접 실험을 해서 보여 줄게. 내 실험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아이들에게 이 실험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말의 힘이 작용할 것이라 믿었다.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했다. 사실 그 순간에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그냥 말을 하고 무작정 기다렸다. 그것이 진정한 말의 힘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불안함이 없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다.

실험 재료로 적합한 것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말의 힘에 대한 밥 실험은 3주 동안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보다 빨리 결과를 얻고 싶었다. 일주일, 늦어도 열흘 안에 결과를 보고 싶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실험 재료를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또 다시 말의 힘에 의존해 보기로 했다. 혼잣말을 수없이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을 하였는데 집 식탁 위에 내가 찾던 실험 재료가 딱하니 놓여 있었다.

내가 실험 재료로 선택한 것은 바나나였다. 바나나는 밥 실험보다 더 빠른 결과를 나에게 보여 줄 것 같았다.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가지에서 난 바나나 중에 아주 비슷하게 생긴 놈 두 개를 골랐다. 색깔뿐만 아니라 크기, 익은 정도, 심지어 껍질에 찍힌 점의 개수도 비슷한 놈으로 고르고 또 골랐다.

그렇게 바나나 두 개를 고른 후에,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적어서 바나나에 붙이려 했는데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고심 끝에 긍정적인 말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쁘다’는 단어와 기독교 최고의 윤리인 ‘사랑’을 조합하여 적었다.

부정적인 말을 정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너무 심한 욕을 적어 놓으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지가 않았다. 아침, 저녁으로 욕을 해야 하는데 입이 너무 더러워지는 것은 싫었기 때문이다. ‘~자식’이라고 하자니 웬지 욕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새끼’라고 하자니 내 입이 너무 더러워질 것 같았다. 그래서 고민 끝에 ‘~같은 놈’으로 적었다.

바나나가 썩으면서 생기는 물로 책상이 오염될까봐 두 개의 바나나를 플라스틱 통 안에 넣었다. 조건을 같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통으로 고르고, 동시에 물로 깨끗이 씻어서 마른 행주로 물기를 제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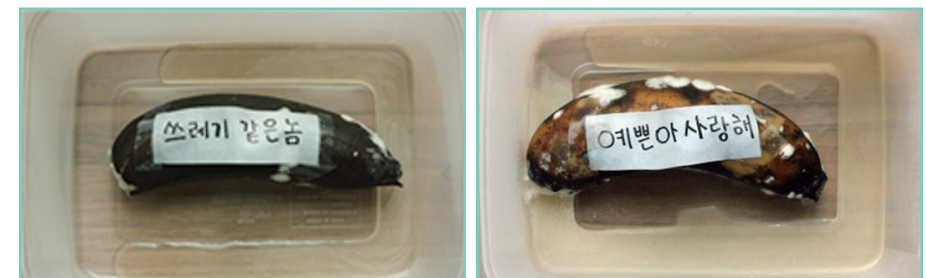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쓰레기 같은 놈”이 적힌 바나나에는 나쁜 말을, “예쁘아 사랑해”가 적힌 바나나에는 사랑의 말을 해 주었다. 조건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하루는 “예쁘아 사랑해”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다음 날에는 “쓰레기 같은 놈”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초를 재 가면서 똑같은 시간 동안 말을 하였고, 채광 조건이나 바람, 습도도 똑같이 맞추었다.

열흘 후

“쓰레기 같은 놈”이 적힌 바나나는 완전히 검은색으로 썩어 있는 반면,

“예쁘아 사랑해”가 적힌 바나나는 본연의 노란색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실험 결과를 보고 학생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

였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한 학생이 나쁜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도 썩어 들어갈 거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그 학생의 말이 아주 인상 깊었다. 욕을 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나고, 심하면 마음의 발이 썩기 시작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니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실험 이후에 우리 반 학생 전원이 전학을 가는 학생에게 손수 편지를 써 주었다. 편지의 내용은 다른 학교에 가서도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격려의 말이 대부분이었다. 아이들은 말의 힘을 믿기 시작했으며, 친구에게 좋은 말하기를 편지글로 실천하였다.

솔직히 실험 결과를 보고 학생들보다도 내 자신이 훨씬 더 놀라고 말았다. 바나나가 어떤 모양으로 썬을지 예상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띄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실험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변화한 것은 나 자신이었다. 실험 이후에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말,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나는 아이들과 나누는 한마디의 말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 최태림, ‘말의 힘’

- 국립국어원, ‘언어의 숨겨진 힘 ⑧ 당신은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볼 문제

1. 바나나 실험 관찰 이후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 말의 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 보세요.

3차시 활동1

<p>긍정의 언어</p> <p>-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언어 -</p> <p>“잘할 수 있을 거야.” “잘될 거야.”</p>	<p>칭찬/격려의 언어</p> <p>- 자신과 타인의 좋은 점을 인정해주고, 싶어갈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언어 -</p> <p>“역시!” “이대로 넌 충분해”</p>
<p>유머의 언어</p> <p>- 웃음과 즐거움을 주고 삶에 여유와 풍요로움을 주는 언어 -</p> <p>“손쉽게 지구를 드는 방법은?” “물구나무를 선다.”</p>	<p>공감의 언어</p> <p>-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언어 -</p> <p>“나도 그랬을 거야.”</p>
<p>책임의 언어</p> <p>-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내가 맡기로 한 일을 성실하게 끝까지 해내려는 태도의 언어 -</p> <p>“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가 해내야 할 일이야.”</p>	<p>배려의 언어</p> <p>- 다른 이를 도와주고 돌보아 주고자 마음을 쓰는 언어 -</p> <p>“내가 도울 일 있나?”</p>
<p>존중의 언어</p> <p>-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거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대하는 언어 -</p> <p>“네가 틀린 게 아니야. 서로 다를 뿐이야.”</p>	<p>신뢰의 언어</p> <p>- 자신과 타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 -</p> <p>“네가 옳은 선택을 할 거라 믿어.”</p>
<p>용서의 언어</p> <p>- 다른 이의 실수나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 주는 언어 -</p> <p>“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난 다 잊었어.”</p>	<p>용서의 언어</p> <p>- 자신과 타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 -</p> <p>“네가 옳은 선택을 할 거라 믿어.”</p>

나를 만들어 가는 말

[]을(를) 만들어 가는 말

긍정적인 점		도전할 점	
남 탓하지 않는	잘 들어주는	욕을 자주하는	불친절한
배려하는	세워주는	자랑하는	무시하는
예의바른	논리적인	거짓말 잘 하는	빈정대는
존중하는	격려하는	소문내기 좋아하는	경청하지 않는
진실한	관심을 갖는	공격적인	남 탓하는
곱고 바른	이름을 불러주는	비판적인	자신감이 없는
따뜻한	힘담하지 않는	불평하는	감정적인
부드러운	솔직한	힘담하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감사할 줄 아는	설득력 있는	차별적인	짜증 섞인
자신감 있는	감성적인	부정적인	비관적인
확신 있는	겸손한	끼어드는	방어적인
공감적인	열정적인	아침하는	거친
믿음직한	온정적인	과장된	버릇없는
재치 있는	지혜로운	얕보는	재미없는
잘 받아주는	유머러스한	약점을 들추어내는	사과할 줄 모르는
긍정적인	배려하는	화를 잘 내는	폭력적인

- 당신의 말을 돌아볼 때 어떤 면이 있는지 긍정적인 점, 도전할 점에서 각 각 세 가지씩 선택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점을 직접 적어도 좋습니다.
- 자신의 용지를 옆 사람에게 차례대로 건네줍니다. 용지에 적힌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의 말이 지닌 긍정적인 점을 두 개씩 선택해 적어주세요.
- 친구들이 적어준 2번 항목을 읽고, 앞으로 갖고 싶거나 개발하고 싶은 말을 세 가지 고른 후에, 이를 빈 칸에 넣어 미래의 되고 싶은 나를 한 문장으로 작성해 보세요.

나는 (), (), () 말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 오늘 나의 느낌은 _____ 합니다.
- 오늘 나는 _____ 을(를) 배웠습니다.
- 오늘 나는 _____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 오늘 나는 _____ 때문에 속상합니다.
- 오늘 나는 _____ 을(를) 깨달았습니다.
- 오늘 나는 _____ 이(가) 자랑스럽습니다.

인격을 낮추는 말, 이런 것들이 있어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사용하는 자신의 인격까지도 낮추게 된다는 점에서 인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비속어, 외모를 비하하는 말, 부정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 등 인격을 비하하는 말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하는 때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 입말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는 물론 SNS, 메신저 등의 모바일 공간이나 인터넷상의 글말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므로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인격을 낮추는 말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주고받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격 비하 표현이라고 여기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비속어가 포함된 말

: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슨 고기를 구워 쳐먹고, 그게 들어가?..... ㉠

● 사람의 외모를 놀림조로 평가하는 말

: 저 얼굴로 어떻게 결혼을 했냐? ㉡

● 나쁜 의도로 사람을 동물에게 빗대는 말

: 밥 먹는 게 꼭 돼지 같다. ㉢

● 부정적인 이미지를 환기하는 표현을 사람에게 빗대는 말

: 머리에 똥 찼냐? ㉣

● 자신의 지위가 더 높음을 강조하는 말

: 난 3학년인데 1학년이 감히 말대답을 해? ㉤

이와 같은 말들은 말을 하는 상황이나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친밀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비속어는 점잖지 못하며 속된 말이므로 인격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외모는 사람의 인성이나 실력과 무관한 것이므로,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말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또한, 놀릴 의도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동물에 빗대는 것이나, 더러움이나 징그러움 등 부정적인 느낌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사람에게 쓰는 것 역시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학년이나 나이가 더 높거나 많음을 내세우는 말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말을 해야 하고, 위와 같은 표현들은 삼가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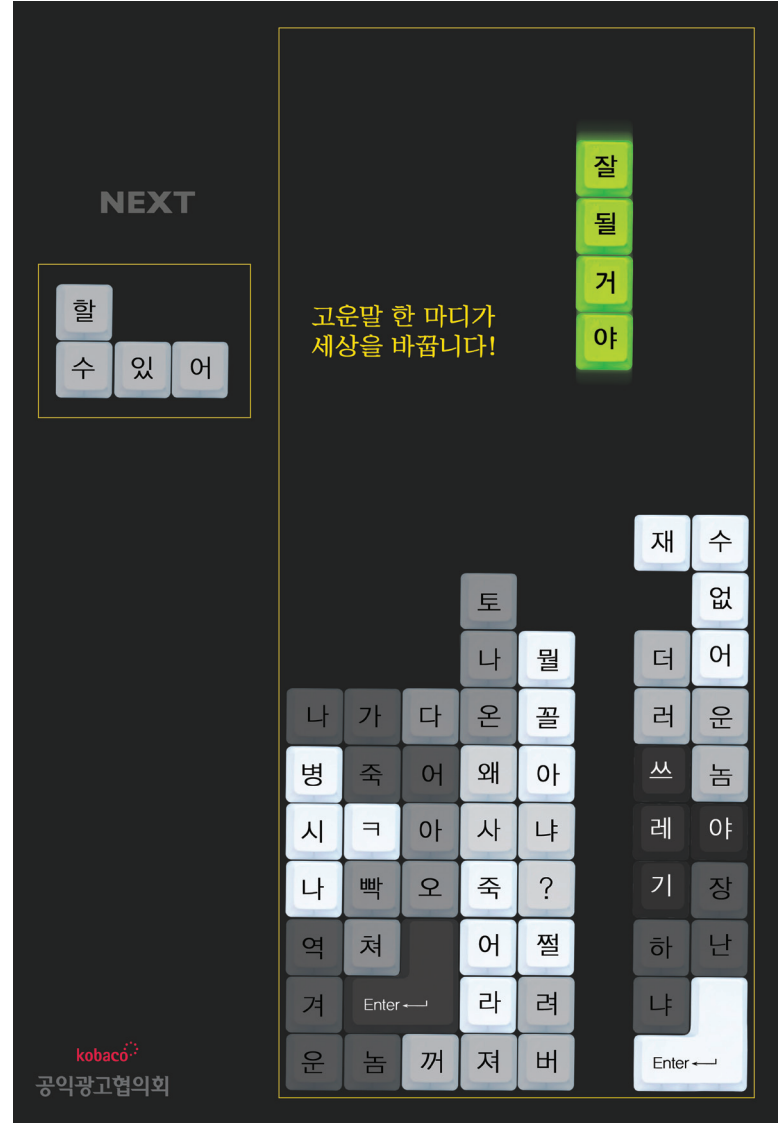
생각해 볼 문제

1. 윗글에 나온 예 중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왜 그렇다고 생각 하나요?
2. 예문 ㉠과 ㉡은 인기리에 방영 중인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방송된 말입니다. 이러한 말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3. 위의 (2)에서 답한 것과 같은 이유로, 한 친구가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이 말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예문 ㉢을 학급 수련회나 동아리 모임에서 친구로부터 들었을 때 나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2)에서 답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드나요?
4. 예문 ㉣~㉤은 인터넷 댓글과 청소년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짝궁에게 이 말을 직접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의 마음과 기분은 어떻게 변할까요?
5. 위의 (4)와 같은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 사람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어떻게 변할까요?
6. 위에서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문 ㉠~㉤이 인격 비하 표현인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인격 비하 표현, 반성 좀 하자!

[모듬 활동]

※다음 공익 광고 인쇄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014), 고운 말 한마디>

생각해 볼 문제

1. 광고 속에 나온 말 중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2. 광고 속에 나온 말 중에서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3. 위의 (1)에서 답한 말을 듣거나 읽었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나요? 아니었다면 그때의 생각과 감정을 적어 보세요.

4. 자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 말을 썼을 것 같나요, 아닌가요? 그렇게 답한 이유도 함께 써 보세요.

5. 위의 (2)에서 답한 말을 하거나 글로 썼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왜 그 말을 썼나요?

6. 여전히 꼭 그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7. 위에서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격 비하 표현의 부정적 영향을 정리해 봅시다.

[개별 활동]

※ 이전에 활동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생활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내용을 한 편의 글(반성 일기)로 써 봅시다. '반성 일기'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씁니다.

- 자신이 특히 자주 써 온 인격 비하 표현의 예를 3개 이상 쓰세요.
-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깨달은 점을 쓰세요.
- 앞으로의 다짐을 쓰세요.

I 유형 서로 알아보기	II 유형 짝에게 들은 내용 그대로 들려주기 (경청 점검)
I 유형 서로 알아보기	II 유형 짝에게 들은 내용 그대로 들려주기 (경청 점검)
I 유형 서로 알아보기	II 유형 짝에게 들은 내용 그대로 들려주기 (경청 점검)
I 유형 서로 알아보기	II 유형 짝에게 들은 내용 그대로 들려주기 (경청 점검)
I 유형 서로 알아보기	II 유형 짝에게 들은 내용 그대로 들려주기 (경청 점검)

카드를 뽑은 사람 “당신이 한 번쯤 다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듣는 사람 “내가 듣기에는 …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대로 들었나요?” 라고 상대가 한 말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며 확인을 받으세요.	“내 짝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은?” 서로 하나, 둘, 셋 하고 알아맞혀 보세요.
카드를 뽑은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꼭 해 보고 싶은 일은?” “왜 그 일을 해 보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듣는 사람 “내가 듣기에는 …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대로 들었나요?” 라고 상대가 한 말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며 확인을 받으세요.	“내 짝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서로 하나, 둘, 셋 하고 알아맞혀 보세요.
카드를 뽑은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듣는 사람 “내가 듣기에는 …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대로 들었나요?” 라고 상대가 한 말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며 확인을 받으세요.	“내 짝의 신발 크기는?” 서로 하나, 둘, 셋 하고 알아맞혀 보세요.
카드를 뽑은 사람은 “내가 친구 관계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덕목은 무엇입니까?” (예, 정직, 신뢰, 의리, 우정 등) 라는 질문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듣는 사람 “내가 듣기에는 …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대로 들었나요?” 라고 상대가 한 말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며 확인을 받으세요.	“내 짝의 혈액형은?” 서로 하나, 둘, 셋 하고 알아맞혀 보세요.
카드를 뽑은 사람은 “친구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내가 버리고 싶은 나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듣는 사람 “내가 듣기에는 …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대로 들었나요?” 라고 상대가 한 말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며 확인을 받으세요.	“내 짝이 가장 좋아하는 야식은?” 서로 하나, 둘, 셋 하고 알아맞혀 보세요.

5차시	활동1		
<p>Ⅲ 유형</p> <p>짜의 말을 듣고 다시 진술하기 (요약하기)</p>		<p>Ⅳ 유형</p> <p>짜의 감정과 생각을 재구성하기 (반영하기)</p>	
<p>Ⅲ 유형</p> <p>짜의 말을 듣고 다시 진술하기 (요약하기)</p>		<p>Ⅳ 유형</p> <p>짜의 감정과 생각을 재구성하기 (반영하기)</p>	
<p>Ⅲ 유형</p> <p>짜의 말을 듣고 다시 진술하기 (요약하기)</p>		<p>Ⅳ 유형</p> <p>짜의 감정과 생각을 재구성하기 (반영하기)</p>	
<p>Ⅲ 유형</p> <p>짜의 말을 듣고 다시 진술하기 (요약하기)</p>		<p>Ⅳ 유형</p> <p>짜의 감정과 생각을 재구성하기 (반영하기)</p>	
<p>Ⅲ 유형</p> <p>짜의 말을 듣고 다시 진술하기 (요약하기)</p>		<p>Ⅳ 유형</p> <p>짜의 감정과 생각을 재구성하기 (반영하기)</p>	

5차시	활동1		
<p>[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답을 골라 보세요.]</p> <p>첫째, 아들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 비판, 충고, 조언을 하지 않은 말 둘째, 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한 말</p> <p>엄마, 다음 주가 시험인데 내일 꼭 치과에 가야 하나요?</p> <p>① 별 핑계를 다 대는구나. 치과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해. ② 그래, 우리 아들이 치료보다 시험에 집중하고 싶구나. ③ 얼른 치료받지 않으면 치아 상한다. 바로 병원 다녀오자.</p>		<p>카드를 뽑은 사람은 질문에 답을 하고, 듣는 사람은 답을 들은 후에 다음과 같이 짜의 말을 이해하고 요약해 봅니다.</p> <p>질문) 친구가 내게 함부로 욕을 하면 어떤 기분과 생각이 듭니까?</p> <p>예시) “난 속상하고 기분이 불쾌해.” ↓ “그래. 수진아, 네가 속상하고 불쾌하구나.”</p>	
<p>[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답을 골라 보세요.]</p> <p>첫째, 친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 비판, 충고, 조언을 하지 않은 말 둘째, 친구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한 말</p> <p>이번 시험 잘 봐야 하는데 왜 이렇게 떨리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날 것 같아.</p> <p>① 괜찮아. 너만 떨리는 거 아니야. 나도 떨려. ②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생각에 불안해서 떨리나 보구나. ③ 어때, 우리에게 도움이 있잖아. 마음 편히 먹어.</p>		<p>카드를 뽑은 사람은 질문에 답을 하고, 듣는 사람은 답을 들은 후에 다음과 같이 짜의 말을 이해하고 요약해 봅니다.</p> <p>질문) 요즘 학교생활에서 고민은 무엇인가요?</p> <p>예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서 괴로워.” ↓ “아, 창민아. 네가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 괴롭구나.”</p>	
<p>[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답을 골라 보세요.]</p> <p>첫째, 친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 비판, 충고, 조언을 하지 않은 말 둘째, 친구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한 말</p> <p>난 사교성이 없나 봐. 내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 같아.</p> <p>①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해 봐. 나아질 거야. ②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가 보다 해. ③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 같아 마음이 힘들겠다.</p>		<p>카드를 뽑은 사람은 질문에 답을 하고, 듣는 사람은 답을 들은 후에 다음과 같이 짜의 말을 이해하고 요약해 봅니다.</p> <p>질문)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p> <p>예시) “난 가질 수 있다면 자신감을 갖고 싶어” ↓ “아, 현수야. 네가 자신감을 갖고 싶구나.”</p>	
<p>[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답을 골라 보세요.]</p> <p>첫째, 친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 비판, 충고, 조언을 하지 않은 말 둘째, 친구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한 말</p> <p>나 그냥 공부 포기해야 하나 봐. 해도 해도 모르겠어. 어떡해야 할지 정말 답답해.</p> <p>① 저런, 너 공부 안 할 때부터 알아봤다. ② 차라리 일찍 포기하고 다른 길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지 몰라. ③ 마음처럼 공부가 잘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을 만큼 답답한가 보구나.</p>		<p>카드를 뽑은 사람은 질문에 답을 하고, 듣는 사람은 답을 들은 후에 다음과 같이 짜의 말을 이해하고 요약해 봅니다.</p> <p>질문) 당신은 어떤 친구를 좋아합니까?</p> <p>예시) “난 친구 사이에 예의를 지키는 친구가 좋아” ↓ “그래, 준혁아. 넌 예의를 지키는 친구가 좋구나.”</p>	
<p>[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답을 골라 보세요.]</p> <p>첫째, 친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 비판, 충고, 조언을 하지 않은 말 둘째, 친구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한 말</p> <p>중학생이 됐는데도 나아진 게 없는 거 같고 자신감도 떨어져요.</p> <p>① 왜 그런 생각이 드니? ② 얼른 대책을 세워 봐야겠다. 같이 고민해 보자. ③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싶은데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아 자신감도 떨어지고 상심이 크겠구나.</p>		<p>카드를 뽑은 사람은 질문에 답을 하고, 듣는 사람은 답을 들은 후에 다음과 같이 짜의 말을 이해하고 요약해 봅니다.</p> <p>질문) 당신이 생각하기에 앞에 있는 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p> <p>예시) “넌 재밌고 솔직해서 멋져.” ↓ “그래, 성수야. 내가 재밌고 솔직하다고 생각하는구나.”</p>	

오늘 나는

1. 오늘 나의 느낌은 _____ 합니다.
2. 오늘 나는 _____ 을(를) 배웠습니다.
3. 오늘 나는 _____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4. 오늘 나는 _____ 때문에 속상합니다.
5. 오늘 나는 _____ 을(를) 깨달았습니다.
6. 오늘 나는 _____ 이(가) 자랑스럽습니다.

너와 나,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 다음 글을 읽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기 위해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정리해 봅시다.

[토요일 아침]

토요일, 아침 늦게 일어난 정호는 거실에 나와 컴퓨터를 켜고 있다.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던 엄마가 이를 보고 정호에게 다가온다.

엄마: 넌 만날 공부도 안 하고 컴퓨터만 하니? 도대체 그래서 크면 뭐가 되려고 해?

이번 국어 성적도 엉망이잖아!

정호: (기분이 확 나빠져서 소리치며) 엄마는 도대체 공부, 공부, 공부!

공부가 나보다 그렇게 중요해요? 엄마가 그래서 내가 공부를 더 안 하는 거예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다.)

엄마: 엄마 앞에서 큰소리는 왜 쳐! 어서 나와 점심이라도 먹어. 밥은 먹어야지.

[토요일 오후]

기분이 상해 점심도 먹지 않고 나와 놀이터 그네에 앉아 있는 정호. 멀리서 주아가 정호를 발견하고는 다가온다.

주아: 정호야,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정호: 그냥, 엄마랑 얘기하고 나면 화가 나.

주아: 엄마랑 이야길 잘해서 엄마한테 이해받고 싶은데, 그렇질 못해서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구나?

정호: 엄만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저 공부만 중요해. 내가 숙제를 하려고 컴퓨터를 켜는데, 엄마는 다 짜고짜 공부도 안 하고 컴퓨터만 한다고 내게 소리를 지르시잖아.

주아: 공부하려고 한 건데 엄마가 오해해서 억울했겠다.

정호: 응, 너밖에 없다 정말. 어쩔 이렇게 내 맘을 잘 아니?

주아: 엄마도 네 마음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표현을 못하셨을 거야. 너도 엄마께 네 상황과 마음을 잘 표현했더라면 혹시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자, 내가 이번에 국립국어원에서 배운 말하기 방법인데, 한번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을 피하면서 내 상황과 감정을 전달하기	문장의 주어를 '나'로 한다.
② 내 상황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잘 표현하기	문장의 내용을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으로 구성한다.

정호: 좀 어려운데, 떡볶이 먹으면서 좀 더 얘기해 보자.

주아: 좋아, 오늘은 네 기분이 안 좋으니 내가 살게!

정호: 으하하! 주아, 최고!

생각해 볼 문제

1. 정호와 엄마의 대화에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2. 주아의 말하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주아와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상상해 봅시다.

주아: 엄마랑 이야길 잘해서 엄마한테 이해받고 싶은데, 그렇질 못해서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구나?

주아: 공부하려고 한 건데 엄마가 오해해서 억울했겠다.

3. 정호와 엄마의 대화를 주아가 가르쳐 준 방법으로 바꾸면 어떤 대화가 될지 상상하여 써 봅시다.

엄마: 넌 만날 공부도 안 하고 컴퓨터만 하니? 도대체 그래서 크면 뭐가 되려고 해?

이번 국어 성적도 엉망이잖아!

정호: (기분이 확 나빠져서 소리치며) 엄마는 도대체 공부, 공부, 공부!

공부가 나보다 그렇게 중요해요? 엄마가 그래서 내가 공부를 더 안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

정호: “저는

.”

“이렇게 말하고 들어 보는 게 어때?”

1. 최근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대화 상황과 그때의 대화를 생각해 아래에 구체적으로 적어 봅시다. (‘그때의 대화’는 당시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보고, 자세히 생각나지 않을 때는 학생이 스스로 재구성해 보면 됩니다.)

문제 상황	
그때의 대화	(※ 대화체로 작성해 보아요.)

2.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표현하는 문장 + 그때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문장을 구성해 봅시다.

예시)

상황 표현

나는 숙제를 하려고 컴퓨터를 켜었는데 엄마가 게임을 한다고 오해하셔서

‘나의 감정 표현

나는 무척 억울하고 엄마에게 공부보다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비참했어요.

상황 표현

‘나의 감정 표현

3. 모둠원들 앞에서 문제 상황을 발표하고 위 2번에서 구성한 문장을 말해 봅시다. 그때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낱말 카드를 모둠원들 앞에 놓으면 활동이 시작됩니다.

언어 환경미화원

신문, 방송, 인터넷뿐 아니라 여러 대중매체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적인 언어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런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언어 표현들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위해 최대한 많은 차별적 언어를 찾아내 주십시오!

양성 불평등 표현	신체적 특성 관련 차별 표현
인종, 국적 및 지역 관련 차별 표현	직업 및 사회적 지위 관련 차별 표현

미혼모	맹인	유색인종
바깥어른	혼혈아	귀머거리
여성 예술가	절름발이	병어리
시집가다	마누라	미숙아
잡상인	장님 코끼리 더듬기	꿀 먹은 병어리
말라깽이	가정부	신용불량자
간호원	똥보	조선족
청소부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사생아	언청이	학부형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1. 기태는 지방에서 온 친구들에게 ‘컵 줌’을 뭐라고 말하는지 물어 봅니다. 이에 해태는 “컵 줌!”이라고 짜증이 섞인 말투로 대답을 합니다. 해태는 왜 화가 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 참여 학생 집단이 서울말을 사용하는 경우 → (2)-1로
참여 학생 집단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 → (2)-2, (3)으로

- 2-1. 평소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텔레비전이나 영화 포함) 어떤 생각이 드는지, 혹은 기태와 같은 태도를 가져 본 적은 없는지 적어 보세요.

- 2-2. 평소 다른 지역 방언이나 서울말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텔레비전이나 영화 포함) 어떤 생각이 드는지, 혹은 기태와 같은 태도를 가져 본 적은 없는지 적어 보세요.

3. 의식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적어 보세요.

4. ‘표준어, 방언’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고, 표준어, 방언 사용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한 모둠원들의 생각을 정리하여 적어 보세요.

사랑해, 너희는 모두 나의 소중한 친구야!

1. 말소리를 듣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상하여 적어 보세요. 또, 말소리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 가지 이상 적어 보세요.

	말하는 사람	특징
예시	김민수	말꼬리가 올라감(너희는/, 모두/, 나의/), 말이 빠름
	이정	말이 느림, 된소리를 많이 냄(사랑해-[싸]랑해), 소-[쏘]중)
1		
2		
3		
4		
5		

2.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활동 소감을 적어 보세요.

(발표자)

- 내 말소리의 특징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 친구들에게 “사랑해, 너희는 모두 나의 소중한 친구야!”라고 말할 때의 기분

(청자)

- 친구의 말소리에 집중하는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 친구들에게서 “사랑해, 너희는 모두 나의 소중한 친구야!”라는 말을 들을 때의 기분

참고 문헌

강응천(2012), 세계 역사를 바꾼 말 한마디, 해와 나무.

국립국어원(2015), 언어의 숨겨진 힘 ⑧ 당신은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심표, 마침표』

2015년 9월 호, <http://www.urimal365.kr/?p=26520>.

국립국어원(2012), 청소년 수련시설 및 초중고교용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2),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09),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지역·민족·인종에 대한 차별적 언어표현 개선 연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07), 차별적·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국민대통합위원회(2015), 청소년의 언어 실태 조사, 국민대통합위원회.

국제연합(1948), 세계인권선언 전문.

박성희(2009), 공감, 이너박스.

박원순·신희섭·장영화·최인호·황주리 외(2008), 견디지 않아도 괜찮아, 샘터.

박인기 외(2012),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박재현(2013),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이론, 사회평론.

박재현 외(2009),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지역·민족·인종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 개선 연구, 국립국어원.

박혜경(2009),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비판적 국어인식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호관·이정복(2012), 다문화인에 대한 한국인의 언어 차별, 인문과학연구 39,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신동일·심우진(2013), 국내 외국인 거주자의 언어권리의 침해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학 51, 이중언어학회.

심순덕(2002),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대화출판사.

이정복(2009), 한국 사회의 인종 차별적 언어문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언어과학연구 125.

이해인(2013), 나를 키우는 말, 시인생각.

전국재(2015), 행복한 만남과 사귄, 시그마프레스.

전국재(2014), 아자! 행복한 만남과 사귄, 시그마프레스.

전국재(2013), 모험기반상담 놀이와 프로그램, 시그마프레스.

전국재(2011), 웅기중기 오순도순 실내에서 즐기는 놀이 192, 시그마박스.

전국재·우영숙(2009), 집단상담의 놀이와 프로그램, 시그마프레스.

전국재·우영숙(2005), 놀이로 여는 집단상담기법, 시그마프레스.

전영우(2003), 표준 화법의 문제와 개선 방향, 새국어생활 13-1, 국립국어연구원.

정유리(2015), 어린이를 위한 말의 힘, 참돌어린이.

조태린(2006),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최요한(2007), 청소년을 위한 대화의 정석, 폴라리스.

최태림(2014), 말의 힘, 국립국어원 『심표, 마침표』 2014년 9월 호, <http://www.urimal365.kr/?p=17332>.

홍종선 외(2013), 방송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David W. Johnson(2009), Reaching out Interpersonal Effectiveness and Self-Actualization, Pearson Education.

Hal Urban, 박정길 역(2006), 긍정적인 말의 힘, 웅진원스.

Marshall B Rosenberg, 캐서린 한 역(2013), 비폭력대화, 한국 NVC센터.

Wright, S.(2007), The right to speak one's own language: Reflections on theory and practice. Language Policy, 6, 203-224.

연구 책임자 전국재(청소년과 놀이문화 연구소 소장)
공동 연구원 강효경(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박혜진(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정희성(청소년과 놀이문화 연구소 팀장)
조진수(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최소영(정신여자고등학교 교사)
한기철(청소년과 놀이문화 연구소 팀장)
담당 연구원 김형배(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검토/자문 박재현(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주영(광남중학교 교사)
전성민(한국청소년사업 총연합회 회장)

발행일 2015년 12월 20일
발행인 송철의
발행처 국립국어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누리집 www.korean.go.kr

이 책의 독창적인 내용에 대한 무단 인용, 전재, 복제를 금합니다.